

HGIS를 활용한 종로구 역사문화유적 표석의 이력DB 구축

최유식*

Building History Database with HGIS: A Case Study on Historical Markers in Jongno-gu, Seoul

Yusik Choi*

요약 : 서울특별시의 역사문화유적 표석은 국제행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5년 처음 설치된 이래 시기 별로 단속적인 현황만 남아 있을 뿐 통시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는 서울특별시 내 표석의 과반수가 밀집되어 있는 종로구를 사례지역으로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을 활용하여 이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력DB는 최신정보에 과거정보를 시간 순으로 누적함으로써 구축되며 그 절차는 공간데이터 생성, 속성데이터 생성, 양자의 연결이라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력DB를 GIS 프로그램으로 지도화하여 복원한 종로구 표석의 30년사는 2008년을 기준으로 양적 팽창이 두드러졌던 전반부, 반대로 기존 표석들에 대한 검증 결과 다수의 이설·철거가 발생한 후반부로 요약되었다. HGIS로 구축한 이력DB는 전자매체에 최적화된 현대사회에서 물리적 장벽을 넘어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표석들이 태생적으로 구사하는 실용적·상징적 기능을 비판적으로 독해할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기념,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 이력 데이터베이스(DB), 지도화, 표석

Abstract : Since 1985 Seoul Metropolitan City have activated the historical markers for nationalistic promotion, without accumulating their diachronic history over thirty-odd years. As a case study, I aimed to build a concise history database(DB) of the historical markers in Jongno-gu, which has the largest share of numbers. Borrowing the methodologies of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HGIS), the history DB was constructed by the following three steps: digitizing spatial data, inputting attribute data and joining them each other. GIS software's mapping function provided a visualized form of DB, showing the significant increase until the year of 2008 and the subsequent slowdown as well. The latter phenomenon mainly resulted from the locational verification conducted by scholars, which consequently led to a number of relocations or removals of mislocated historical markers. The history DB using HGIS methods basically benefits people from high accessibility to past information. It clearly mitigates physical obstacles when processing an enormous amount of data, especially in everyday life optimized for electronic devices. Moreover, given that all historical markers innately perform practical and symbolic functions at the same time, it guides the citizens through how to critically comprehend commemorative monuments of the city.

Key Words : commemoration,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HGIS), historical marker, history database(DB), mapping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M.A., Department of Geography, Korea University, yusikchoi62@gmail.com)

1. 서론

1985년부터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서울특별시는 권역 내의 사라진 문화유산의 터나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유적 標石을 설치해 왔다(서울특별시, 2014). 표석은 기본적으로 위치비정과 같은 학술연구를 비롯하여 주민들의 교육자료, 도로명 명명, 둘레길 조성과 같은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전거로 활용된다(김한배, 200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金世恩, 2012). 또한 역사적 대상의 실제 크기보다 훨씬 작은 표지물에 핵심적인 내용만 압축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원본 복원과 달리 현재의 도로망이나 건물 구조를 거의 훼손하지 않고도 경제적인 방법으로 도시의 역사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 번 설치된 표석은 재질의 특성상 그 자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기 쉽고 신뢰도 높은 전거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설치 위치나 문안내용이 자주 수정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상은 생각보다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 30여 년 동안 상당수가 오류나 민원으로 인한 移設과 문안수정, 훼손이나 관리지침 변경으로 인한 재질 변경을 겪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시점에 기록한 표석의 위치표시 역시 제때 최신화하지 않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번이나 인근 랜드마크의 변경과 같은 외적 요인으로 인해 낡고 잘못된 정보로 변질된다. 최신정보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위와 같은 정보의 유동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표석의 신뢰도, 나아가 활용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표석의 불가피한 유동성을 감수하면서 신뢰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최신정보와 함께 역대 과거정보들을 시간 순서대로 쌓아올린 履歷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력은 정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시간값을 추가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정보의 신뢰도를 보완하며, 구축된 이력은 그 자체가 ‘표석의 역사’로 기능한다. 표석 자체(記標)의 역사는 그들이 각자 가리키는 인물·사건·시설

물·자연물(記意)의 역사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용자들에게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30여 년이라는 시간은 생각하기에 따라 이력을 구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긴 시간이기도 하고 축적할 사항이 더 늘어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기도 하다.

이력을 구축하는 다양한 방법 중 본고는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DB)의 형태로 ‘표석 30년사’를 구축하였다. HGIS란 역사지리정보를 데이터로 처리하는 체계를 일컬으며 일반적으로 DB 관리와 지도화라는 양대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Gregory and Ell, 2007). HGIS에 기반을 둔 DB 구축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주로 지도집 편찬과 같이 방대한 자료를 입력·표출·관리하려는 일환으로 논의되어 왔으나(Bol, 2002; 김종혁, 2008; Southall, 2011; 윤병남·박성현, 2013) 개별 지역 단위의 과거상 복원에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Isoda *et al.*, 2009; Cunningham, 2014; 김현중, 2017; 홍명진, 2017).

이력DB 구축에 HGIS를 활용하는 이유는 첫째, 연구자 개인 혹은 집단의 물리적 한계와 제약을 완화해 주기 때문이다. 전자매체는 종이매체로 수백 수천 장에 달하는 자료를 데이터로 빠르고 정밀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정 및 저장, 배포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다루어야 할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고 구조가 복잡할수록 전자매체의 당위성과 효용성은 더욱 높아진다.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이 물리적 장벽을 허물고 일일생활권과 지구촌 개념을 낳았듯이 HGIS의 이 장점은 연구자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을 대폭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전자기기가 학문영역뿐만 아니라 현대사회 전반에 이미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인문지리학에 생소했던 컴퓨터 기술이 차츰 주요한 방법론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데에는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들의 성능이 높아지는 반면 가격은 저렴해지고 사용법이 직관적으로 개선되면서 대중에게 확산된 덕이 컸다(Gregory and Ell, 2007). 전자기기의 대중화는 사료의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도

공헌했다. 한 사례로 이민철(2014)은 고지도의 이미
지 파일을 현대 위성지도 위에 겹침으로써 누구나 양
시대의 지리적 事象을 눈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열었다. 표석의 이력DB 역시 현대사회에서 일
상화된 컴퓨터나 스마트폰, 인터넷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를 요한다.

상기한 HGIS의 장점을 살리되 본고는 논의의 산
만한 전개를 막기 위해 몇 가지 제한을 두었다. 먼저
공간적 범위는 2018년 10월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표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표석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5년부터 표석이 설치되어 많은 이력이 쌓
인 종로구로 한정했다. 그리고 표석의 신설로부터 철
거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변동사항, 즉 이설·문안
수정·보수 중에서는 지리적 위치가 변경되는 이설만
을 DB에 기록했다. 정리하면 본고의 목표는 HGIS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198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종
로구에 존재해 온 표석들의 신설-이설-철거를 이력
DB로 구축하는 데 있다.

2. 역사문화유적 표석의 개요

1985년, 서울특별시의 첫 표석 설치의 아시안게
임과 올림픽을 대비한다는 이벤트적 성격을 갖고 있
었다. 당시 서울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여
러 차례의 병란과 급격한 도시화로 많은 유적들이 훼손·멸실·이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 위치에 표석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고유함과 우수성을 내·외
국인들에게 교육하고 후대에 길이 남기고자 하는 것
이 최초의 취지였다(朴慶龍, 1991; 전우용, 2005). 이
해에 서울특별시에는 10개, 종로구 내에는 5개의 표
석들이 최초로 설치되었다. 그 후 매년 표석의 수와
설치 지역을 조금씩 확대해 가던 서울특별시는 2000
년부터 2002년 사이에 월드컵이라는 또 다른 이벤트를
맞이하여 표석을 대거 신설하고 디자인에도 변화
를 시도했다(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그림 1).
2014년에는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표



관석형(종침교 터)



벽돌기둥형(장흥교 터)



책형(내자시 터)



책상형(관상감 터)



원통형(내수사 터)



신규기본형(김정희 본가 터)

그림 1. 표석의 형태별 유형

유형의 명칭은 서울열린데이터광장(2017)을 따랐으며 이 외에도 관석기둥형, 벽돌벽부형, 신규벤치형, 신규주사위형 등 다양
한 형태가 있다.

석의 건립과 관리에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표석은 단순히 가치중립적으로 인물·사건·시설물·자연물의 흔적을 가리키는 실용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외국인 방문객에게 업선된 역사적 키워드를 홍보·교육하는 상징적 기능도 함께 담고 있다. 국제행사를 대비하면서 내부적으로 민족주의적인 결속을 꾀하는 전략은 같은 시기에 병행된 가로명 부여 및 도로명주소 사업과도 일맥상통한다(Azaryahu, 1996; 최유식, 2017). 표석의 신설이나 철거에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중요도나 기여도, 그리고 문중·종교인·이익집단의 예상반응과 형평성까지 고려되기 때문에 만인에게 인정받을 객관성을 추구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사와 최종선정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가치판단은 피할 수 없다(Babcock, 1930). 따라서 표석을 학술연구나 정책결정의 근거로 활용할 때에는 그것에 반영된 주관적 가치판단까지도 함께 고려하면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야 하며, 이력DB를 구성하는 참조자료를 선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력DB 구축의 핵심은 최신정보와 과거정보 중 어느 한 쪽만을 보여주지 않고 양자를 동시에 누적하는데 있다. 먼저 최신정보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에서 2017년 12월자의 현황표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엑셀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서울열린데이터광장(2017)에 따르면 2017년 12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표석의 수는 서울특별시 322개, 종로구 164개(51%)에 달한다. 답사 결과 종로구 내에서는 2018년 현재까지도 표석 수의 증감이나 이설이 없어 이력DB의 최신정보로 활용 가능했다.¹⁾ 또한 각 표석들의 명칭, 문안내용, 설치연도, 형태유형, 주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속성들을 풍부하게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자지도로도 서비스함으로써 HGIS의 장점을 이미 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구현하고 있다(<http://map.seoul.go.kr/smgis/webs/main/main.do>).

서울열린데이터광장(2017)은 최근 몇 년간의 변동사항과 그 사유도 속성들 중 하나로 수록되어 있으나 이력DB라 칭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현존하는 표석 164개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

철거된 표석은 수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85년 종로구에는 ‘광혜원 터,’ ‘돈의문 터,’ ‘수효교 터,’ ‘서울대학교 터,’ ‘홍화문 터’의 총 5개 표석이 설치되었으나 이 중 수록된 것은 철거되지 않고 현재까지 남은 ‘서울대학교 터’ 단 하나뿐이다. 오로지 서울열린데이터광장(2017)만을 참조할 경우 1985년 종로구에 표석이 1개만 설치되었고 나머지 4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이 최신정보 아래 가려져 있던 표석의 흔적을 남기는 것도 이력DB를 구축하는 주된 이유에 포함된다.

둘째, 이설 전의 위치정보가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석을 이설하게 되면 당연히 그 위치를 표현하는 지번이나 찾아가는 교통수단, 인근의 랜드마크 설명도 달라지는데 이 자료는 이설 후의 위치정보만을 기술하였으므로 그 전에 표석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애초에 위치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이력DB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본고의 이력DB는 위치정보를 기록하므로 이설 전·후의 내용을 동시에 기재해야 한다. 상기한 이유로 서울열린데이터광장(2017)은 일부 이력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종로구 표석의 이력DB에서 최신정보를 담당하는 데 그쳤다.

이어서 과거정보를 수록하기 위한 참조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먼저 표석 설치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초창기 제도의 배경 및 상세정보를 기록한 朴慶龍(1991)을 들 수 있다. 서울특별시(1995; 2004)에서도 1985년 이래 대략 10년을 주기로 두 차례 표석문안집을 발간한 바 있다. 두 문안집은 거의 비슷한 양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시의 공식자료로서 공식력이 높고 9년 동안의 표석 수 증감을 연 단위로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1995)에서 15개였던 1987년도 신설 표석 수가 서울특별시(2004)에서 14개로 변경된 점은 이력DB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두 명단을 대조해 보면 ‘홍영후 선생 살던 집’ 표석이 빠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으나, 1995년과 2004년 사이에 철거되었으리라는 추정만 가능할 뿐 정확히 몇 년도에 무슨 이유로 철거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서울특별시(2004)는 물론 그 이후 서울열린데이터광장(2017)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표석 자료집에도 해당 표석의

행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²⁾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2010)은 표석을 소재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면서 수록한 제반 정보들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비록 2010년 시점의 모든 표석들을 수록하지는 않았으나 이 웹사이트는 사진자료가 풍부하고 위치정보도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되어 사라진 옛 표석의 위치비정에 중요한 전거가 되었다.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2013)의 연구용역보고서는 서울특별시에서 2014년 정식으로 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데 바탕이 된 자료로서 가치가 높고, 이후의 정비내용은 서울열린데이터광장(2017)에 수록되어 현재에 이른다.

종로구 표석의 이력DB는 위 6종의 참조자료들을 시간 순에 따라 通時的으로 배열함으로써 1991년, 1995년, 2004년, 2010년, 2013년, 2017년으로 약 5년 단위의 현황을 반영했다. 그러나 斷續의 현황만으로는 표석의 변동사항이 정확히 몇 년도에 발생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공백기의 정보는 답사 및 주민과의 인터뷰, 한국콘텐츠진흥원(2010) 및 포털 사이트의 로드뷰에 촬영된 과거 사진,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표석 담당 주무관과 전화 및 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보완했다. 서울특별시의 정보공개 웹사이트(<https://opengov.seoul.go.kr/>)에서 공개되고 있는 표석 분과 회의록 및 각종 공문서도 최근 몇 년간의 내력을 생생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 이력DB 구축 절차

1) 공간데이터 생성

Gregory and Ell(2007, 41-62)은 章 하나를 할애하여 HGIS DB의 구축 절차를 ‘2차사료 입력 - 2차사료의 지오레퍼런싱(geo-referencing) - 1차사료 입력 - 속성·공간데이터 연결 - 후처리’의 다섯 단계로 설명한다.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전자화된 자료가 전무하여 새로 만들어야 하거나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등 다양한 경우를 상정하

여 세분화한 전 과정일 뿐, 결국 요약하면 공간데이터와 속성데이터를 생성한 뒤 양자를 연결하는 과정이다. 본고의 종로구 표석 이력DB는 참조자료의 일부가 이미 전자화되어 있고 연구자 개인의 힘으로 최소화된 형태의 DB를 구축하고자 하므로 위의 다섯 단계를 그대로 따르게 되면 HGIS의 장점인 효율성에 반하게 된다. 이에 여기서는 구분을 최소화하여 ‘공간데이터 생성 - 속성데이터 생성 - 공간·속성데이터 연결’이라는 3단계에 맞춰 구축 절차를 설명한다.

공간데이터(spatial data)란 지리적 事象의 위치나 모양에 대한 정보로서 GIS 프로그램상에서는 점·선·면으로 시각화되어 표출된다(Knowles, 2002, 194). 일반 종이지도에서 가옥과 같은 소규모 시설물을 점으로, 강이나 도로 등을 선으로, 필지나 논배미를 면으로 표현하여 색칠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단 GIS 프로그램은 점·선·면 하나하나에 현실의 위치 정보를 부여함으로써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화면상에 단순히 점 하나 찍는 일은 GIS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고 공간데이터라 할 수도 없다. 컴퓨터가 화면상의 (0, 0) 점을 동경 127.0도, 북위 37.6도로 인식해야 비로소 공간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이다.³⁾ 서울열린데이터광장(2017)에 수록된 현존 표석 164개에는 모두 경·위도 값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GIS 프로그램의 시각화 기능을 활용하여 곧바로 점으로 표출할 수 있다(그림 2).

각각의 점(표석)들은 구별을 위해 일종의 이름처럼 ID를 명명해야 한다.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기존의 이용자와 겹치지 않게 ID를 정하는 것처럼 DB에서 ID를 부여할 때에도 각 점·선·면의 개체성만 담보된다면 기계적으로 일련번호를 붙이거나 여러 종류의 문자를 혼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ID만으로도 표석의 이설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석명_시작연도_종료연도’라는 형식에 맞추었다. 예를 들어 ID가 ‘한성정보총국 터_2016_9999’인 점은 2016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존재하는 한성정보총국 터 표석을 나타내는데, 종료연도를 2018로 입력하면 2018년에 철거 혹은 이설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김현중(2017, 80)의 방법을 인용하여 현존 표석의 종료연도는 9999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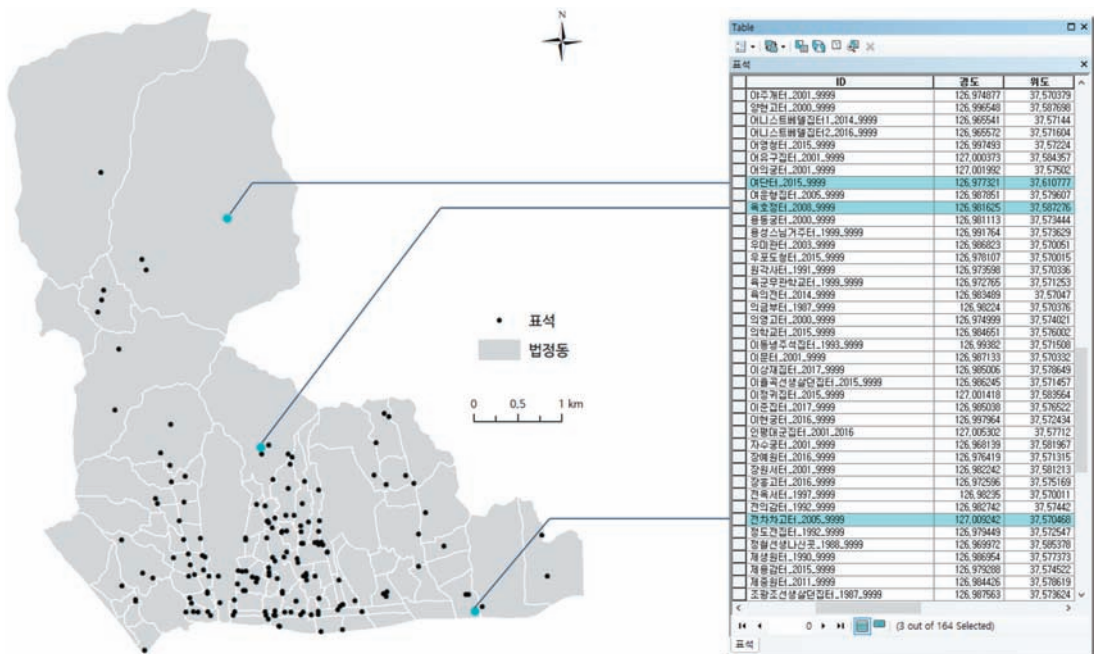


그림 2. 표석의 공간데이터(2018년)

표석을 나타내는 점 1개당 ID 1개씩이 배치되어 있고, 경·위도 좌표가 각각 부여되어 있다.

입력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력DB는 최신정보뿐만 아니라 과거정보도 누적한다. ‘한성전보총국터_2016_9999’는 해당 표석이 현 위치에 세워진 연도를 보여줄 뿐 2003년 신설 이래 2016년까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과거정보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과거정보, 특히 이설되기 전의 위치정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그곳을 찾아 또 다른 점을 찍고, 새로운 점이 생겼으므로 ID도 새로 ‘한성전보총국터_2003_2016’이라고 부여하면 된다. 이력DB 구축에 있어서 다른 절차는 대부분 GIS 프로그램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이 비정 작업만큼은 여전히 컴퓨터 밖의 사료와 답사가 필요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했다.

6종의 참조자료 중 서울열린데이터광장(2017)에는 모든 표석에 경·위도 좌표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그 이전의 자료들에는 일부만 기재되어 있거나 지번, 찾아가는 교통수단, 인근 랜드마크 등 다른 수단으로 위치정보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GIS 프로그램에서 점으

로 자동 변환할 수 없다. 대신 지번도 및 현지 주민·관계자와의 인터뷰, 한국콘텐츠진흥원(2010)의 사진자료,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연 단위로 전국의 거리 주변 사진을 축적하여 이력의 모범을 보여주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http://map.daum.net/>; <https://map.naver.com/>)를 통해 표석의 과거 위치를 비정할 수 있었다. 이로써 종로구 내 표석이 설치되었던 역대 241개의 점을 수동으로 찍고 점마다 하나씩 ID를 부여했다.

최신·과거정보를 누적하여 생성한 이력DB의 공간데이터는 경·위도나 지번 등 텍스트로 구성된 위치표시를 GIS 프로그램상에서 이미지로 시각화함으로써 종로구의 각 표석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공간데이터만으로는 ID 외에 각 점(표석)의 다른 세부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표석이 해당 지점에 있었을 때의 지번은 무엇이었는지, 표석이 그 자리에 계속 고정되어 있던 도중에도 지번이 달라지는 않았는지, 어떤 변동사항 때문에 별도의 점

과 ID를 부여했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이 공간데이터에 추가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상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속성데이터이다.

2) 속성데이터 생성

속성데이터(attribute data)란 지리적 사상의 제반 특징들을 컴퓨터에 기록한 것으로 표식의 경우 명칭, 문안내용, 형태유형, 지번, 역대 변동유형 및 그 변동이 일어난 시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Knowles (2002, 180)에 따르면 속성데이터는 보통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하나를 행, 그 대상의 속성들을 열로 배치한 표로 만들며 서울열린데이터광장(2017) 역시 종로구 표식 하나당 1행과 63개의 속성을 배치하여 총 164행 63열의 표로 정리되어 있다. 속성데이터는 연구자의 목적과 여건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표식의 이설을 최소한의 구조로 파악한다는 목적에 맞게 ID, 표식명, 시작연도, 종료연도, 정비유형, 지번으로 총 6개(6열)의 속성만을 간추려 선정하였다.

최신정보만을 담을 경우 이 구조만으로도 충분하나, 과거정보를 시간 순서대로 누적하는 이력DB를 구축할 때에는 역대 정보를 행 혹은 열 어느 쪽에 누적할지를 추가로 고민해야 한다. ‘어영청 터’ 표식을 사례로 보면 1988년 신설되어 2015년 이설, 2018년 현재에 이르는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표식은

朴慶龍(1991)부터 서울열린데이터광장(2017)까지 6종의 참조자료에 모두 등장한다.

앞서 생성한 공간데이터에는 ‘어영청터_1988_2015,’ ‘어영청터_2015_9999’ 2개의 ID(점)가 부여되어 있다. 만일 최신정보에 과거정보를 행에 이어붙일 경우 참조자료의 개수대로 ID를 6개까지 늘릴 수 있고(그림 3의 ②), 열에 이어붙일 경우 ‘어영청터_1988_9999’라는 단일 ID 아래 ‘지번’ 열이 6개로 세분된다(③). ID의 증감은 연구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공간데이터에서 이미 목적에 부합하도록 점을 찍고 ID를 부여했으므로 재차 개수를 늘리거나 줄이면 소정의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 ID의 수를 늘리면 같은 자리에 불필요하게 점이 여러 개 찍히고, 반대로 ID의 일원화로 점이 단 하나로 줄어들면 표식의 이설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데이터에서 만든 ID와 점의 개수를 유지하면서 과거정보를 이어붙이는 안을 택했다(④).

이력DB를 구축하는 도중 모든 속성데이터가 완전하게 채워진 것은 아니다. 각 자료집에 수록된 많은 수의 표식이 지번을 명시하지 않았고, 또 일부 표식은 언제 이설되거나 철거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서울시에 공식 회의록 등 자료 탐색을 요청하고 의문사항을 질의함으로써 최대한 공란을 채웠다. 마지막까지 남은 미상의 속성데이터는 ‘대한매일신보 창간 사옥 터’와 ‘이상 집 터’ 두 표식의 정확한 철거연도였는데, 제반 자료들을 통해 대략적인 연대까지는 추

① 최신정보만으로 구성된 속성데이터

ID	표식명	시작 연도	종료 연도	정비 유형	지번
어영청터_1988_9999	어영청 터	1988	9999	이설 (2015년)	인의동 101-4

③ 과거정보를 열에 이어붙인 속성데이터

ID	표식명	시작 연도	종료 연도	정비 유형	지번	지번	지번	지번	지번	지번
어영청터_1988_9999	어영청 터	1988	9999	이설 (2015년)	1991년 인의동 112-1	1995년 인의동 48-2	2004년 인의동 48-2	2010년 인의동 112-2	2013년 인의동 112-2	2018년 인의동 10

② 과거정보를 행에 이어붙인 속성데이터

ID	표식명	시작 연도	종료 연도	정비 유형	지번
어영청터_1988_1995	어영청 터	1988	1995	-	인의동 112-1
어영청터_1995_2004	어영청 터	1995	2004	-	인의동 48-2
어영청터_2004_2010	어영청 터	2004	2010	-	인의동 48-2
어영청터_2010_2013	어영청 터	2010	2013	이설	인의동 112-2
어영청터_2013_2015	어영청 터	2013	2015	-	인의동 112-2
어영청터_2015_9999	어영청 터	2015	9999	-	인의동 101-4

④ 과거정보를 행과 열에 분담하여 이어붙인 속성데이터

ID	표식명	시작 연도	종료 연도	정비 유형	지번	지번	지번	지번	지번	지번
어영청터_1988_2015	어영청 터	1988	2015	-	인의동 112-1	인의동 48-2	인의동 48-2	인의동 112-2	인의동 112-2	-
어영청터_2015_9999	어영청 터	2015	9999	이설	-	-	-	-	-	인의동 10

그림 3. 속성데이터의 최신정보에 과거정보를 붙이는 방법

표 1. 표석의 속성데이터(1990년)

ID	표석명	시작 연도	종료 연도	정비 유형	지번_1991년	지번_1995년	지번_2004년	지번_2010년	지번_2013년	지번_2017년
금위영터_1990_9999	금위영터	1990	9999	•	운니동 98-5	운니동 99	운니동 99	운니동 98-5	운니동 98-5	운니동 97-10
맹사성집터_1990_9999	맹사성 집터	1990	9999	•	삼청동 35-119	삼청동 35-119	삼청동 35-119	(표석 미수록)	삼청동 35-119	삼청동 35-120
의정부터_1990_2009	의정부터	1990	2009	•	세종로 76	세종로 76-2	세종로 76-2	•	•	•
이항복집터_1990_2013	이항복 집터	1990	2013	•	필운동 9	필운동 12	필운동 12	(표석 미수록)	•	•
제생원터_1990_9999	제생원터	1990	9999	•	계동 147	계동	계동	계동 140-2	계동 140-2	계동 149-4
제중원터_1990_2011	제중원터	1990	2011	•	명동1가 1-1	을지로2가 181	을지로2가 181	•	•	•
제중원터_2011_9999	제중원터	2011	9999	이설 (위치오류)	•	•	•	재동 83	재동 83	재동 36-5
척화비있던곳_1990_2015	척화비 있던 곳	1990	2015	•	관철동	관철동	관철동	(표석 미수록)	관철동 45-5	•
척화비있던곳_2015_9999	척화비 있던 곳	2015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	관철동 45-13

주: 전체 속성데이터 241행 중 일부로서 1990년에 신설된 표석들의 이력 9행만을 발췌한 것이다. 전체관은 부록을 참조.

자료: 朴慶龍(1991), 서울특별시(1995), 서울특별시(2004), 한국콘텐츠진흥원(2010),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서울열린데이터광장(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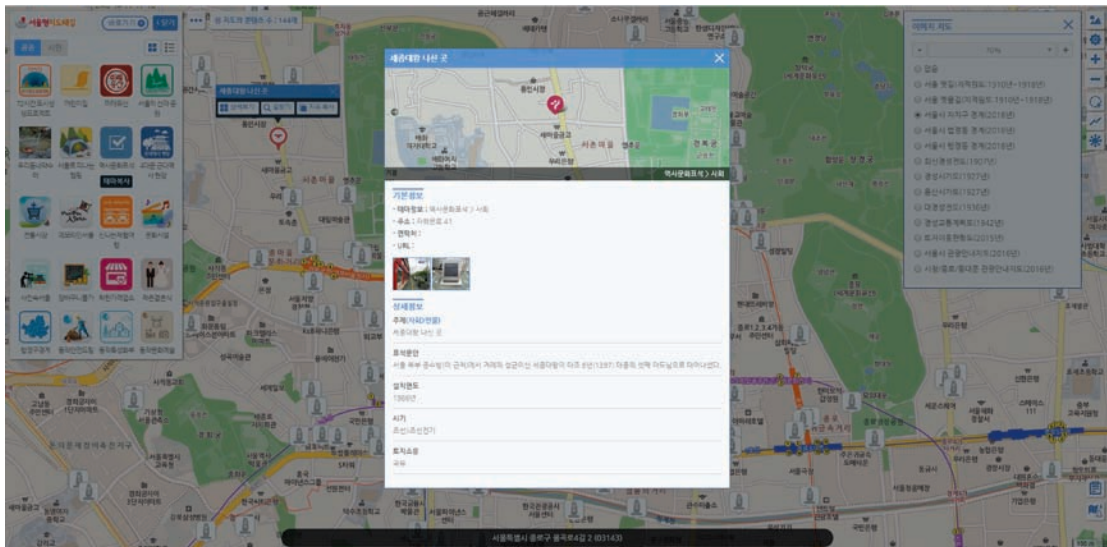


그림 4. 공간데이터와 속성데이터의 연결

자료: 서울형 지도매핑 공유마당.

정할 수 있었으나 결국 정확한 연도까지는 알아낼 수 없었다. 이에 본 이력DB에는 차선택으로 연대가 확실한 정보까지만 속성데이터로 입력하였고, 확실하지 않은 경우 '0000년부터 0000년까지는 자료부족으로 인해 추적불가'로 기록해 두었다. 이는 시간값을 기록하여 정보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이력DB의 기본 특성을 따른 방법이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종로구 표석의 속성데이터는 표 1과 같이 241개의 ID와 11개의 속성, 즉 241행 11열로 생성된다. 앞서 HGIS의 공간데이터가 속성데이터 없이 자립할 수 없음을 설명했듯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속성데이터는 열의 추가에 따라 각 ID의 세부정보를 무궁무진하게 생산하여 보여줄 수 있으나 텍스트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ID의 지리적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도 등 다른 참조자료를 동원해야 한다. 특히 표석의 이설과 같이 여러 ID 간의 상대적 위치와 이동 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간데이터와의 연결이 필수적이다.

3) 공간·속성데이터 연결

HGIS의 특징점은 GIS 프로그램상에서 ID를 매개로 공간·속성데이터를 연결함으로써 양자의 약점을 상호 보완하며,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데이터의 효과적인 해석을 돕는 데 있다(Bodenhamer, 2010). 따라서 HGIS 방법론으로 만든 이력DB의 궁극적 형태는 양 데이터가 연결되어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양 데이터의 연결 자체는 각 ID들의 명칭과 개수를 동일하게 맞추었다는 전제 하에 GIS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종로구 표석의 이력DB에서는 241개의 점(공간데이터)과 241개의 행(속성데이터)이 서로 결합되었다. 이에 점 하나를 클릭하면 해당 표석의 경·위도 좌표, 정비유형과 사유, 각 시기별 지번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특정 표석만을 다르게 표출함으로써 심화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표석의 공간·속성데이터가 결합된 전형적인 사례는 서울형 지도태깅 공유마당(<http://map.seoul.go.kr/smgis/ webs/mai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 이 웹사이트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2017)을 인용하여 2018년 현재 남아 있는 표석만을 대상으로 했고 속성데이터가 무려 63행에 달하기 때문에 본고의 간략화된 이력DB와는 다소 지향점이 다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GIS 프로그램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도상에 표석을 나타내는 점(공간데이터)을 클릭하여 그 표석에 대한 다양한 속성데이터를 알기 쉽게 열람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대중에 공개했다는 큰 의의가 가진다(그림 4). 서울특별시(2015)의 표석사료집에 따르면 공간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위치를 비정하는 기초작업에서도 관련 전공자들이 고지도와 고서적, 옛 신문기사, 사진 등 다양한 사료를 전거로 참조하는 등 지도태깅 서비스는 많은 면에서 HGIS의 DB 구축 방법론과 일치한다.

공간데이터와 속성데이터가 연결된 이력DB는 GIS 프로그램의 시각화 기능을 통하여 첫째, 지도로 편집하여 컴퓨터 화면은 물론 종이에도 인쇄할 수 있다. 종이지도는 명실공히 지리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거나 현대에도 여전히 전자기기의 시각지대는 도처에 존재한다. 이를테면 보안상의 이유로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거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곳, 전파가 닿지 않는 오지, 또는 전자기기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기온이 높거나 낮은 곳에서도 종이에 인쇄한 지도는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시각화 기능은 둘째, 여러 가지 조건을 적용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점·선·면만을 표출할 수 있다. 가령 종로구 내 역대 표석이 설치되었던 242개소를 전부 표출하는 것보다는 '1990년 당시에 설치되어 있던 표석만' 선택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보기에도 더 좋고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건문 역시 컴퓨터 전용의 언어를 입력하던 전통적 방식에서 마우스로 버튼을 클릭하는 시각적인 방식으로 개선되어 가며 사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그림 5는 이력DB를 지도화하여 표석 분포의 변천을 10년 단위로 복원한 것이다. 최초의 표석 설치가 1985년에 이루어졌음에도 1988년을 기점으로 삼은 기본적인 이유는 지도들 사이의 시간간격을 동일하게 설정하되 2018년 현황을 포함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더해 완성된 이력DB를 검토한 결과 종로구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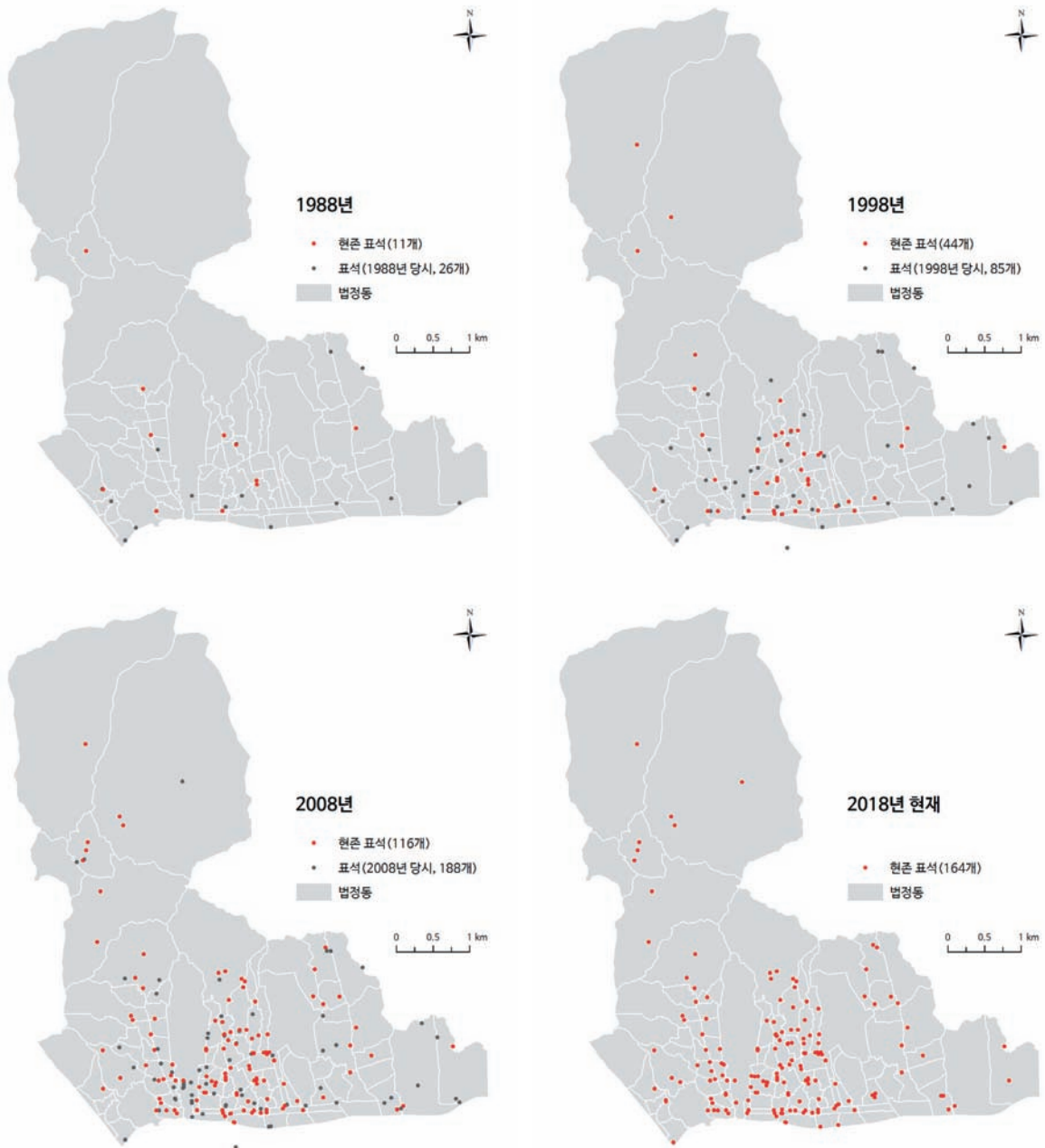


그림 5. 표석의 분포 변천

표석 수가 가장 많았던 해가 2008년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2008년을 ‘표석 30년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특기할 필요가 있었다.

총 4장의 단면도에서 검은색 점은 이력DB 구축의 의의와 직결되어 있다. 검은색 점은 1988년·1998

년·2008년 각각의 시점에 존재했던 표석 중 뒷날 다른 곳으로 이설되거나 철거되는 것, 빨간색 점은 설치된 그 상태 그대로 변동 없이 2018년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들을 나타낸다. 최신정보에 해당하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2017)의 자료만으로 지도를 그리면 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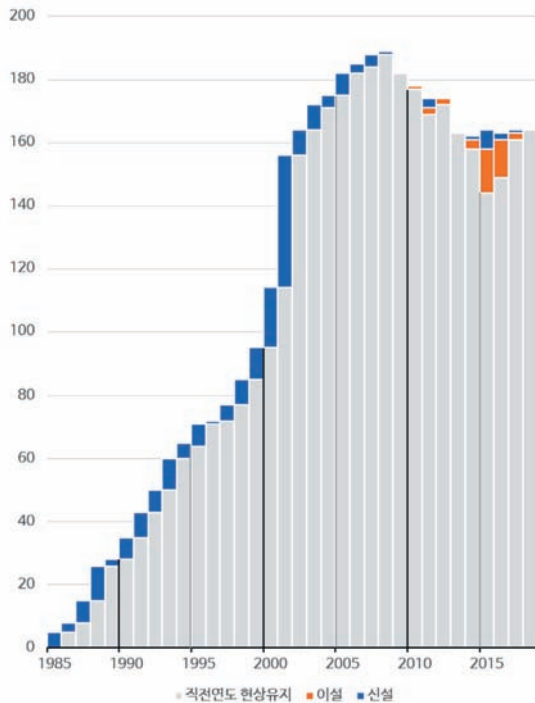


그림 6. 표석의 연도별 현황

간색 점만 남게 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그것은 현존하는 164개 표석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정보일 뿐 철거되어 사라진 표석, 즉 검은색 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 시점에 분명히 존재했던 표석임에도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도상에도 표출되지 않는다.

이어서 분포의 변천을 시각적으로 대조해 보면 1988년부터 2008년까지는 두 색깔의 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직전 단계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작은 크기의 소략한 지도 4장 만으로는 30여 년 이력의 전모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표와 그래프를 만들어 텍스트를 보충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역시 이력DB에 포함된 속성데이터를 가공하여 생성할 수 있다. 지도에서 조건문으로 검은색과 빨간색 점을 구분했듯이, 여기서의 '가공'도 속성데이터에 조건문을 적용하여 특정한 데이터만을 산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비록 자료부족으로 인한 '추적불가' 2건이 남아 있으나 그림 6과 표 2에 명시된 구체적인 수치, 그리고 6종의 참조자료에 기재된 과

표 2. 표석의 연도별 현황

(단위: 개)

연도	신설	이설	철거	추적불가	누계
1985년	5	•	•	•	5
1986년	3	•	•	•	8
1987년	7	•	•	•	15
1988년	11	•	•	•	26
1989년	2	•	•	•	28
1990년	7	•	•	•	35
1991년	8	•	•	•	43
1992년	7	•	•	•	50
1993년	10	•	•	•	60
1994년	5	•	•	•	65
1995년	7	•	•	•	72
1996년	1	•	•		72
1997년	5	•	•		77
1998년	8	•	•	대한매일	85
1999년	10	•	•	신보	95
2000년	19	•	•	창간	114
2001년	42	•	•	사옥 터	156
2002년	8	•	•		164
2003년	8	•	•		172
2004년	4	•	1	•	175
2005년	7	•	•		181
2006년	3	•	•		184
2007년	4	•	1	이상	187
2008년	1	•	•	집터	188
2009년	•	•	7		181
2010년	•	1	4	•	177
2011년	3	2	7	•	173
2012년	•	2	•	•	173
2013년	•	•	11	•	162
2014년	1	3	4	•	162
2015년	6	14	4	•	164
2016년	2	12	3	•	163
2017년	1	2	•	•	164
2018년	•	•	•	•	164

주: 누계는 '추적불가' 2개를 제외하고 확실히 해당 연도에 존재했다고 확인된 표석만을 대상으로 함.

거정보를 바탕으로 '표석 30년사'의 개략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85년 이래 초창기 10년 동안 종로구에서는 기

존 표석의 이설이나 철거 없이 신설만 이루어지다가 2004년 ‘홍영후 선생 살던 곳’이 안내문과의 역할 중복으로 인해 최초로 철거되었다. 그러나 2008년까지 표석의 철거는 ‘돈의문 터’(2007년)까지 총 2건에 지나지 않은 반면 신설은 매년 빠짐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석 수의 증가 추세는 200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특히 월드컵을 앞둔 시점인 2000년에 19개, 2001년에 42개의 표석들이 대거 확충된 사실이 주목된다.

표석의 수는 2008년 189개로 최고점을 기록했다가 2009년부터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2009년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면서 세종로 가장자리에 존재했던 일부 표석들이 이듬해까지 철거되고 광장 바닥의 관석으로 교체되었다.⁵⁾ 이력DB에 따르면 역시 2009년을 시작으로 단 1건의 신설도 없는 해가 생겨났으며 이 무렵부터 종로구 표석의 정비는 신설보다 기존 표석의 검증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결정적으로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2013)이 기존 표석들의 위치 및 문안오류를 대거 밝혀낸 2013년에는 종로구 내에서만 무려 11건의 철거가 이루어졌고 2015년에는 14건, 2016년에는 12건에 달하는 표석들이 새로이 밝혀진 원 위치를 따라 자리를 옮겨갔다.

표석의 일생, 즉 신설로부터 철거 사이에 발생하는 이설은 지리적 위치와 위치표시를 변경하기 때문에 본 이력DB에 유일한 변동사항으로 반영되었으며 종로구 내에서는 2018년 현재까지 총 38건이 발생했다(그림 7).

공간데이터에서 이설 전·후의 점을 38개의 선으로 잇고 그 거리를 측정한 결과 가까운 것은 0.8m에서부터 먼 것은 1,502m까지 다양했다. 이설거리의 편차가 큰 것은 위치오류의 수정뿐만 아니라 원본 시설물부터가 여러 곳을 거쳐 온 까닭에 비정할 터가 많거나 표석의 시인성 향상,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등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력DB상 수치로 나타나는 종로구 표석 30년사를 거칠게 요약하면 이설·철거보다 신설에 치중하여 양적인 성장이 두드러졌던 전반부, 반대로 기존 표석의 질적인 검증에 나서면서 수치적으로는 다소 하락세를 거쳐 안정기에 접어든 후반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



그림 7. 표석의 이설경로

다. 한 번 공식적으로 비정했던 옛 터를 원점에서부터 검증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가장 많은 수의 표석을 보유한 종로구로서 특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들로 하여금 현재 설치된 표석 전반의 신뢰도에 의구심을 품게 하며 행정 당국이나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표석 제도 초창기 양적인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비정을 허술하게 했다’는 부끄러움을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설과 철거를 비롯한 검증은 부끄러운 과오가 아니라 반대로 신뢰도를 높이는 정직한 반성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오류가 밝혀졌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오류이자 사실 왜곡이다. 사람 개개인에게도 저마다의 역사가 있듯이, 현재 시점에서 시민들이 보고 이용하는 표석의 현재는 태어날 때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신설 시점으로부터 다양한 이력을 축적해 온 결과물이다. 거듭된 ‘덮어쓰기’는 정보의 최신화라는 미명 하에 사실을 왜곡하므로, 표석은 가려진 과거정보를 발굴하여 이력DB로써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

4. 이력DB를 활용한 표석의 비판적 독해

1) 실용적 기능

이력DB는 GIS 프로그램의 시각화 기능과 연동함으로써 가장 기초적인 구조만으로도 종로구 표석의 양적인 분석뿐 아니라 질적인 분석을 어느 정도 가능케 한다(Hanna and Hodder, 2014). 상술한 바와 같이 표석은 이미 여러 곳에 전거로 활용되고 있고, 역사적 대상을 지칭하는 실용적 기능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작은 크기·면적에 많은 이야기를 함축하는 상징적 기능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비판적 독해가 필수적이다(Azaryahu, 1996). 표석의 제반정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이력DB의 필요성과도 직결되어 있으며 실용·상징 양대 기능으로 각각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표석의 실용적 기능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결코 객관적이지 않으며 반대로 주관성을 강하게 반영하기도 한다. 먼저 표석의 위치를 기술하는 텍스트는 시간의 흐름과 인간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이력DB를 구축한 결과 공간데이터상으로는 표석이 이설하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도중에도 속성데이터에서 참조자료별로 지번이 조금씩 변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에서 ‘금위영터_1990_9999’의 지번은 처음 1991년 자료에서 운니동 98-5번지로 기록되었다가 1995년과 2004년에는 99번지, 2010년과 2013년에는 다시 98-5번지, 2017년에는 97-10번지로 기록되어 있다.

가만히 고정된 표석의 위치표시가 참조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에는 토지의 분합에 따른 지번 경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자료의 기록자들이 저마다의 판단에 따라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지번을 써 넣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같은 동 안에서 인접한 지번들이 기록되는 것은 물론 동명까지 바뀌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동망봉_1997_2018’의 경우 2004년에 송인동 58번지로 지번이 처음 수록된 이래 2010년과 2013년에는 송인동 58-587번지로 기록되었으며, 2017년에는 바로 인접한 성북구 필지를 인용하여 보

문동6가 209-280번지가 되었다.

본 이력DB에서는 구조의 간략화를 위해 생략하였으나 표석의 위치를 기술하는 방법에는 지번 외에도 도로명주소, 찾아가는 길의 교통수단, 인근의 랜드마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로 측정한 경·위도 좌표 등이 있는데 이들 역시 시간의 흐름이나 측정기준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심지어 GPS마저도 표석의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소수점 범위에서 미세하게 다른 값이 나온다. 그 정도의 오차는 표석을 찾거나 지도를 그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실상 같은 장소이나 GPS는 엄밀한 수치를 근거로 다른 장소임을 알려준다. 기계적 수치의 정밀성이 오히려 공간인식을 방해하는 사례라 하겠다.

현재 ‘서울형 지도태깅 공유마당’ 가장 윗줄에서 표석의 위치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도로명주소도 실제 표석을 찾아가는 용도로는 무리가 없으나 엄밀하게 따지면 표석이 아닌 인접 건물을 가리키고 있다. 토지표시인 지번과는 달리 도로명주소는 토지 위의 건물을 표시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최유식, 2017). 대부분의 표석이 건물에 밀착해 있는 도심과 달리 공원과 같은 녹지 한복판에 표석이 설치되었다면 도로명주소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수십 m 떨어진 인근 건물까지만 길을 안내하고 역할을 종료한다. 그림 8에 묘사된 대로, ‘동망봉 터’를 찾기 위해 도로명주소가 지시하는 건물을 정확히 찾아온 뒤에도 실제 표석



그림 8. ‘동망봉 터’ 도로명주소와 실제 표석 간의 오차
자료: 네이버 지도, 서울형 지도태깅 공유마당.

까지 닿기 위해서는 다시 방위를 잡아 추가적인 탐색을 벌여야 한다. 도로명주소가 안내하는 곳은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지점일 뿐이다.

한편 랜드마크는 일상대화 속에서 위치를 설명할 때 주로 쓰이는 방법이지만 최신정보가 빈번하게 수정된다는 단점이 뚜렷하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2017)은 '3·1운동유적지:유심사터_2012_9999'의 위치를 '○○○ 게스트하우스 왼쪽 벽면 부착'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2018년 9월 7일 현지답사 결과 해당 업체는 이름을 유지한 채 이전하였으며 다른 상호의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서 있었다. 정보라는 것이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이상, 특히 그 속도가 유례없이 빠른 현대사회에서 위치표시는 필연적으로 시한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결국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최신정보'를 믿을 수 없고 현장에서 여러 종류의 위치표시를 상호 대조하면서 표석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보의 시한부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상술했듯이 이력DB를 구축하

여 정보의 기준시점과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다.

위치표시뿐만 아니라 시점에 대한 기술 역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는 것은 금물이다. 현재 종로구에 남아 있는 표석들 중에는 설치시점을 연, 월, 혹은 일 단위까지 새겨놓은 것이 일부 존재한다. 가령 '이상재 집터_2017_9999'에는 돌의 오른쪽 옆면에 '제137호 1995.9 서울특별시'라는 글귀가 부기되어 있다(그림 9).

이 글귀는 표석이 마치 1995년 9월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소지도 있다. 반면 이력DB를 참조할 경우 그것이 '이상재 집터_1995_2017'의 위치오류로 인해 2017년 현재의 자리로 이설한 것이라는 과거정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옛 시간정보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지니는 것은 이력의 관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력에서는 과거정보만큼 최신정보 역시 동등하게 중시되므로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반대로 지면의 한계로 인해 최신정보가 과거정보



이상재집터_2017_9999



박인환선생집터_2004_9999



순화궁터_1999_9999



대수사터_2000_9999



도정궁터_2001_9999



중부학당터_2016_9999

그림 9. 설치시점을 부기한 표석

위의 3개 표석들과 달리 아래의 3개 표석들은 설치시점을 문안내용에 포함하거나 바로 아래에 부기함으로써 관람 시 시선의 분산을 줄였다.

를 일방적으로 지워 없애는 경우도 최근 표석에서 많이 발견된다. ‘도정궁터_2001_9999’는 기준시점이 2016년 4월로 부기되어 있으므로 그 전까지 현 위치에 도정궁 터 표석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2016년 4월부터 재질을 벽돌기둥형으로 교체하고 같은 지점에 재설치한 것이다. 과거정보가 삭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역대 과거정보를 일일이 기록하면 표석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압축적인 몇 문장만으로 역사적 대상을 알려야 할 작은 표석이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한두 가지 부연설명을 붙이기 시작하면 상징성이라는 본질을 잃고 안내문과 다름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석의 이력은 돌 자체에 축적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면, 특히 전자매체를 활용한 DB로 구축되고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상징적 기능

표석의 현 위치 중에는 옛 시설물이 실제로 존재했던 정위치를 밝혀냈음에도 고의로 다른 곳에 떨어뜨려 설치한 경우가 있다. 이력DB상의 이설 사유들을 보면 위치오류뿐만 아니라 관람불편과 통행불편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안동별궁터_2015_2018’은 본래 ‘안동별궁터_1998_2015’ 당시 학교의 운동장 안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표석을 관람하려는 시민들이 상시 출입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정문 밖으로 이설한 사례다.

표석은 역사적으로 정위치이면서도 눈에 잘 띄어야 한다는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띠고 있으며 양자는 서로 상충될 때가 많다(Babcock, 1930). 각종 사료를 통해 정위치를 비정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곳이 시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이거나 이미 건물이 들어선 사유지, 자동차 도로 한복판으로 확인된다면 정위치를 일정 부분 희생할 수밖에 없다(전우용, 2005). 결과적으로 공원 녹지처럼 비교적 넓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당수의 표석들이 현재 도로 가장 자리에 통행인들을 바라보도록 배치된 것은 서로 상충되는 양대 임무를 충족하기 위한 타협안이다. 최대한 정위치에 가깝게 표석을 비정하려는 검증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나, 검증을 거친 표석에도 어느 정도

의 오차가 담겨 있음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타협 없이 정위치에 설치한 표석이 있다 해도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다. 표석의 크기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각각의 표석이 가리키는 영역은 한층 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력DB에서는 비교적 대충적의 지도에 표출하기 위해 표석을 일괄 ‘점’으로 표현했으나 사실 표석들이 각각 가리키는 역사적 대상의 ‘면적’은 작은 우물에서부터 한 개인의 집터, 궁궐터까지 매우 다양하다. 현재 표석의 위치표시 중 대표적인 지번도 그 바탕이 되는 필지의 크기가 저마다 다르므로 학교와 같이 넓은 필지 위에 있는 표석은 정확히 필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찾기 위해 랜드마크 등을 함께 참조해야 한다.

안동별궁 터를 다시 예로 들어 보면, 현재 그 표석이 서 있는 좁은 영역은 안동별궁이라는 넓은 영역을 대표하고 있으나 그 위치는 어디까지나 궁궐 부지의 정확한 중앙점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추정되는 영역 내에서 시인성이 높은 한 지점을 고른 것뿐이다. ‘이율곡선생살던집터_2015_2018’의 문안 중 “이 언저리……”라는 애매한 표현이 말해 주듯이, 모든 표석은 동일하게 복원한 1:1 모형이 아니기에 원본보다 훨씬 작은 크기와 좁은 면적으로 원본을 재현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⁶⁾

마지막으로, 표석에 비판적 독해가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신설에서부터 이설, 철거까지 전 과정이 자연법칙이 아닌 인간의 판단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표석의 설치가 굵직한 이벤트의 영향을 받아 왔음은 누차 상술했거니와 판단기준은 시기·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⁷⁾ 선택은 필연적으로 ‘선택받은 것’과 ‘선택받지 못한 것’을 구분하며, 공식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전자와 그렇지 못한 후자 사이에는 언제든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된다. 심지어 선택받은 것들 사이에서도 사소한 차이를 빌미로 내부 계층을 나누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Hanna and Hodder, 2014).

서울특별시(2014)가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2013)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이유도 위와 같은 오차와 갈등을 최대한 줄이기



그림 10. 서울특별시 표석과 민간 표석의 혼재

빨간색 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세운 표석, 노란색 원은 민간에서 세운 표석을 나타낸다. 민간 표석 중 일부는 서울특별시 표석과 디자인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부기된 설치주체를 확인하기 전에는 쉽게 분간하기 어렵다. 위 사진의 민간 표석은 단성골드빌딩에서, 아래 사진의 것은 경기고등학교와 그 동창회가 공동으로 세웠다.

위함이었지만, 결국에는 기념대상을 최대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조율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표석을 비롯한 역사적 기념물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대상을 지칭하는 실용적 기능과 더불어 그 역사적 대상을 기리고 시민들을 교육하는 상징적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표석으로부터 기념이라는 주관성을 인위적으로 배제하여 객관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스스로 활용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종로구에서 가장 최근에 설치된 ‘이준집터_2017_9999’도 마찬가지로 이준의 헤이그특사 파견과 순국 110주년을 기념하는 목적 하에 신설된 표석이다.⁸⁾

표석의 이러한 상징적 기능은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표석을 세워 특정한 역사적 대상을 기념하는 결과를 낳았다(그림 10).

특히 이력DB에 수록된 ‘이석형생가터_1997_2011’와 ‘이정귀집터_2015_9999’의 내력은 공식과 비공식 간의 미묘한 긴장마저 담고 있다. 이석형은 이정귀의 고祖父로, 각자의 생가 터에 1997년과 2004년에 표석이 신설되었으나 위치비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1년에 모두 철거되었다. 단 4년 뒤 명확한 위치비정이 가능해진 ‘이정귀 집 터’만 이설하여 재설치하면서 그 문안내용에 이석형을 간략히 포함시켰

다.⁹⁾ 원 표석이 위치오류로 철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형의 후손들은 설치 부지를 제공했던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공식과 흡사한 표석을 같은 위치에 다시 설치했고, 현재도 자체적으로 그를 기리고 있다.

인물의 호칭 문제도 표석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호칭은 표석의 이름으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인물의 선정 기준과도 이어지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력DB에 수록된 종로구의 현존 표석 164개 중 ‘이정귀 집 터’와 같이 표석명에 인물명이 포함된 것은 39개, 그 중 현 가이드라인에 맞게 높임법 없이 중립적으로 성명만을 기재한 것은 22개이다. 논란의 씨앗을 품고 있는 호칭은 나머지 17개로, 그 중에는 선생이 가장 많고(8개) 장군이 그 뒤를 이으며(3개). 그 외에는 대군·대왕·도원수·스님·의사·주석이 각각 하나씩 있다. 물론 세종대왕과 인평대군처럼 본명보다 호칭이 더 유명한 인물도 있고, 가이드라인 이전에 제작된 표석들은 차후에 정비할 때 호칭을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시한폭탄처럼 계속 남게 된다.

5. 결론

본 논문은 종로구 내 표석의 30년사 대부분이 최신 정보에 가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 공백을 메우고 정확한 과거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HGIS의 방법론을 따라 이력DB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본고에서 구축한 이력DB는 구조의 최소화라는 목표로 인해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했다. 우선 공간적 배경을 종로구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전체의 이력을 복원하지 못했고, 그 결과 종로구 표석의 수가 서울특별시 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는지, 인접한 구에서는 얼마나 표석이 설치되어 있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리고 변동사항 중에서도 이설만을 다루었을 뿐 문안수정이나 재질 변경과 같이 분명히 발생했던 과거정보를 이력DB에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자 개인 자격으로 약식 DB를 구축하는 여건 속에서 DB 구축의 전 과정, 즉 2차자료 입력 - 2차자료의 지오레퍼런싱 - 1차자료 입력 - 속성·공간데이터 연결 - 후처리를 따르지 못하고 단 3단계로 축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차후 정식으로 보완해야 할 약점이다.

어렵게 구축한 이력DB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간데이터를 점·선·면 다양한 유형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비록 본고의 이력DB는 각 표석들을 일괄 점으로 표현하였으나 점 데이터는 자칫 靜的이고 천편일률적인 현황 분포도에만 국한될 우려가 있으며, 이렇게 기존의 종이지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결과물은 HGIS의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무색하게 한다. 표석의 이설 경로를 추가한 그림 7은 그와 같은 분포도를 탈피하여 動的인 요소를 추가하기 위한 작은 시도였다. 더욱이 문화지도 전 영역으로 이력DB를 확대할 경우 면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거나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점’으로 표현될 만한 명확한 자리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분포를 나타내는 점뿐만 아니라 이설 경로나 교통로와 같은 선 데이터, 그리고 문화권이나 행정구역과 같은 면 데이터를 함께 이력DB에 포함시킨다면 보다 풍성하고 역동적인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HGIS가 모든 문제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Taylor(1990, 212)가 경고했듯이 GIS에 대한 무분별한 긍정론과 맹신은 금물이다. 앞서 전자지도의 출력에서 언급했듯이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다룰 줄 모르는 상황에서는 GIS에 의존할 수 없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은 역으로 그 정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더욱이 HGIS의 장점을 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역사학·지리학·컴퓨터 기술 모두에 고루 능통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여전히 낮다고 할 수 없다. GIS가 계량적 연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인식 또한 질적 연구에 익숙한 학자들의 접근을 막는 데 일조하고 있다(Gregory and Ell, 2007; Knowles, 2008).

그럼에도 HGIS의 도입은 연구대상으로 삼는 시대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간문제라 다가가 있다(김종혁, 2006; Bodenhamer, 2010). 굳이 ‘방법론’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는 자료 열람에서부터 분석과 저장, 논문 집필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구분야를 막론하고 보편화되어 있으며 사회 전반으로 시야를 넓히면 전자매체에 최적화된 일상을 살고 있음을 곧바로 실감하게 된다. 이 경향은 결코 게으름이나 편의주의 때문이 아니라, 한 개인이나 단체가 일상적으로 다루어야 할 정보의 양이 수작업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흐름과 정비례하여 쌓이고, 동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이력을 조속히 DB로 구축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

- 1) 비록 본고의 이력DB에 수록되지는 않았으나 2018년에 아무 활동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특별시의 공문서를 참조하면 아직 문안작성과 설치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뿐 2018년 6월의 위원회 심의에서 종로구 표석 2개 설치가 가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홍영후 선생 살던 집’ 표석은 2004

- 년에 철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홍영후(홍난파)의 가옥이 2004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보다 넓은 지면에 상세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안내판이 표석을 대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설된 안내판과의 역할 중복으로 표석이 철거되는 사례는 그 외에도 종로구 내에 다수 발견된다.
- 3) 이와 같이 점·선·면으로 표현한 지리적 사상에 현실세계의 좌표를 부여함으로써 정위시키기는 작업을 지오레퍼런싱(geo-referencing)이라 한다. 지오레퍼런싱은 점·선·면의 길이와 면적, 각도 등을 산출하여 지리적 사상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이를테면 '화면상 두 점 간의 거리가 현실세계에서는 몇 m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Gregory and Ell(2007, 47)의 DB 구축론에서는 제3단계로 언급될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기본이 되는(absolutely fundamental)" GIS 작업으로 강조된다.
- 4) 해외의 사례로는 186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블루 플라크(Blue Plaque)의 분포 변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English Heritage Blue Plaques Scheme'이 있다(<https://www.arcgis.com/apps/TimeAware/index.html?appid=b69ac4493cf64e088f4883c637933e55>). 영국 런던에 900개 이상 분포하는 블루 플라크는 이름처럼 과랑고 둥근 명판에 역사적 대상을 기리며, 역사적 표지물과 관련한 세계 최초의 제도로 일컬어진다(<https://www.english-heritage.org.uk/visit/blue-plaques/>).
- 5) 이들 판석은 현재까지도 광화문광장에 남아 옛 터를 보여주고 있으나 표석으로서의 관리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력 DB에서도 제외했다.
- 6) 비슷한 사례로 '어영청 터'(인의동 이 언저리는……), '북평관 터'(이 언저리 동부 흥성방은……), '정철 선생 나신 곳'(이 언저리 장의동은……)이 있다.
- 7) 역사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대상은 그에 대한 기념 또한 논란을 불러온다. 공산주의 사상가 카를 마르크스가 살았던 런던 옛 거주지에 1937년 블루 플라크가 신설된 적이 있었으나, 잦은 훼손과 재설치 끝에 가옥 소유주가 3번째 설치를 반대하기에 이르러 결국 철거되었다(<https://www.english-heritage.org.uk/visit/blue-plaques/>).
- 8) 서울신문, 2017.7.14., 이준 열사 순국 110주년, 안국동에 집터 표석 섰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14500130>)
- 9) "이정귀(1564~1635)는 인조대 좌의정을 지냈으며 문장과 글씨로 이름이 높았다. 고조부 이석형(李石亨)이 성균관 남쪽에 자리 잡은 이후로 이정귀를 비롯한 후손들이 대대로 이곳에서 살았다."

참고문헌

- 金世恩, 2012, 古地圖를 활용한 消滅文化遺蹟의 位置推定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혁, 2008, "디지털시대 인문학의 새 방법론으로서의 전자문화지도," 국학연구, 12, 263-290.
- 김한배, 2007, "서울 서촌(西村) 역사문화탐방로 조성방안 연구: 인왕산록과 백운동천 수계(白雲洞川 水系)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5(3), 22-36.
- 김현중, 2017, 조선시대 교통로 복원과 공간 데이터베이스 설계: 경기도 광주부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국내 항일독립운동 사적지 조사보고서 1: 서울 독립운동 사적지, 서울.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표석정비 가이드라인 용역.
- 朴慶龍, 1991, "서울文化遺蹟 考察," 郷土서울, 50, 339-408.
- 서울특별시, 1995, 역사 문화 유적의 현장을 찾아: 문화유적 표석 문안집, 서울.
- 서울특별시, 2004, 역사 문화 유적 현장을 찾아: 역사문화 유적 기념표석 문안집, 서울.
- 서울특별시, 2014,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
- 서울특별시, 2015, 역사문화유적 표석 사료집, 서울.
- 윤병남·박성현, 2013, "동북아역사지도 제작을 위한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96-300.
- 이민철, 2011, 구글 위성지도로 구현한 대동여지도의 지리정보: 강원도 지역 山城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우용, 2005, "서울의 기념인물과 장소의 역사성: 가로명 및 공공부지 조형물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25, 89-122.
- 최유식, 2017, "서울 사대문안의 주소체계 개정에 대한 비관지명학적 분석," 문화역사지리 29(4), 78-96.
- 홍명진, 2017, "일본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의 연구현황과 활용에 관한 연구: 일본 근세 시대 지역공간 복원방법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52(6), 845-861.
- Azaryahu, M., 1996, The power of commemorative street

- nam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4(3), 311-330.
- Babcock, W. M., 1930, The problem of historic markers and monuments in Minnesota, *Minnesota History*, 11(1), 25-35.
- Bodenhamer, D. J., 2010, The Potential of Spatial Humanities, in Bodenhamer, D. J., Corrigan, J., and Harris, T. M.(eds.), *The Spatial Humanities: GIS and the future of humanities scholarship*,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 Bol, P. K., 2008, Creating a GIS for the History of China, in Knowles, A. K.(ed.), *Placing History: How Maps, Spatial Data, and GIS are Changing Historical Scholarship*, ESRI Press, California.
- Cunningham, N., 2014, Troubled Geographies: A Historical GIS of Religion, Society, and Conflict in Ireland since the Great Famine, in Gregory, I. N. and Geddes, A.(eds.), *Toward Spatial Humanities: Historical GIS & Spatial History*,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 Gregory, I. N. and Ell, P. S., 2012, *Historical GIS: Technologies, Methodologies, and Scholarship*,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Hanna, S. P., and Hodder, E. F. 2014, Reading the signs: using a qualitativ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to examine the commemoration of slavery and emancipation on historical markers in Fredericksburg, Virginia, *cultural geographies*, 22(3), 1-21.
- Isoda, Y., Tsukamoto, A., Kosaka, Y., Okumura, T., Sawai, M., Yano, K., Nakata, S., and Tanaka, S., 2009, Reconstruction of Kyoto of the Edo Era Based on Arts and Historical Documents: 3D Urban Model Based on Historical GIS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Arts Computing*, 3(1-2), 21-38.
- Knowles, A. K.(ed.), 2002, *Past Time, Past Place: GIS for History*, ESRI Press, California.
- Knowles, A. K., 2008, GIS and History, in Knowles, A. K.(ed.), *Placing History: How Maps, Spatial Data, and GIS are Changing Historical Scholarship*, ESRI Press, California.
- Southall, H., 2011, Rebuilding the Great Britain Historical GIS, Part 1: Building an Indefinitely Scalable Statistical Database, *Historical Methods*, 44(3), 149-159.
- Taylor, P. J., 1990, Editorial Comment: GKS, *Political Geography Quarterly*, 9, 211-212.
-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
- 다음 지도, <http://map.daum.net/>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 서울특별시,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
- 서울특별시, 서울형 지도태깅 공유마당, <http://map.seoul.go.kr/smgis/webs/main/main.do>
- 서울특별시,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
-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 문화재 기념표석들의 스토리텔링 개발,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Main.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10&cp_code=cp1012
- English Heritage, Blue Plaques, <https://www.english-heritage.org.uk/visit/blue-plaques/>
- ESRI, English Heritage Blue Plaques Scheme, <https://www.arcgis.com/apps/TimeAware/index.html?appid=b69ac4493cf64e088f4883c637933e55>
- 교신: 최유식, 02841,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3길 37-6 201호(이메일: yusikchoi62@gmail.com)
- Correspondence: Yusik Choi, 201, 37-6, Jongam-ro 3-gil, Seongbuk-gu, Seoul, 02811, Korea (e-mail: yusikchoi62@gmail.com)
- 최초투고일 2018. 10. 10
- 수정일 2018. 11. 5
- 최종접수일 2018. 11. 20

부록 - 표석의 속성데이터(1985~2018년 현재)

표 3. 표석의 속성데이터(1985~2018년 현재)

ID	표석명	시작 연도	종료 연도	정비 유형	지번 _1991년	지번 _1995년	지번 _2004년	지번 _2010년	지번 _2013년	지번 _2017년
광혜원터 _1985_2011	광혜원 터	1985	2011	•	재동 83	재동 83	재동 83	(지번 미 수록)	•	•
제중원터 _1990_2011	제중원 터	1990	2011	•	명동1가 1-1	을지로2 가 181	을지로2 가 181	•	•	•
제중원터 _2011_9999	제중원 터	2011	9999	이설 (원본 제중 원의 최초 소재지로)	•	•	•	재동 83	재동 83	재동 36-5
돈의문터 _1985_2007	돈의문 터	1985	2007	•	(지번 미 수록)	(지번 미 수록)	(지번 미 수록)	•	•	•
수표교터 _1985_2011	수표교 터	1985	2011	•	관수동 149	관수동 20	관수동 20	(미수록)	•	•
서울대학교터 _1985_9999	서울대학교 터	1985	9999	•	동송동 111-124	동송동 1-3	동송동 1-3	동송동 1-124	동송동 1-124	동송동 1-124
홍화문터 _1985_2015	홍화문 터	1985	2015	•	혜화동 34	(지번 미 수록)	(지번 미 수록)	(지번 미 수록)	혜화동 28-8	•
서울의중심점표지석 _1986_2013	서울의 중심점 표 지석	1986	2013	•	(지번 미 수록)	(지번 미 수록)	(지번 미 수록)	인사동 194-4	인사동 194-4	•
성삼문선생살던곳 _1986_9999	성삼문 선생 살던 곳	1986	9999	•	(지번 미 수록)	화동 23-9	화동 23-9	(미수록)	화동 23	화동 138-22
세종대왕나신곳 _1986_9999	세종대왕 나신 곳	1986	9999	•	통의동 199	통인동 137	통인동 137	(미수록)	통인동 119-1	통인동 119-1
경기감영터 _1987_2016	경기감영 터	1987	2016	•	(지번 미 수록)	평동 164	평동 164	평동 213	평동 164	•
경기감영터 _2016_9999	경기감영 터	2016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	평동 211
김정희본가터 _1987_2014	김정희 본가 터	1987	2014	•	(지번 미 수록)	통의동 7	통의동 7	적선동 1	통의동 67-3	•
김정희본가터 _2014_9999	김정희 본가 터	2014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	적선동 6
영도교터 _1987_2013	영도교 터	1987	2013	•	(지번 미 수록)	황학동 162	황학동 162	(지번 미 수록)	송인동 234-84	•
의금부터 _1987_9999	의금부 터	1987	9999	•	(지번 미 수록)	공평동 94 • 163	공평동 94 • 163	공평동 100	공평동 100	종로1가 48-7
조광조선생살던집터 _1987_9999	조광조 선생 살던 집 터	1987	9999	•	(미수록)	(미수록)	(미수록)	(미수록)	돈의동	낙원동 278-1
조지서터 _1987_9999	조지서 터	1987	9999	•	(지번 미 수록)	신영동 196	신영동 196	신영동 199-3	신영동 200-3	신영동 199-2
홍영후선생살던집 _1987_2004	홍영후 선생 살던 집	1987	2004	•	(지번 미 수록)	홍파동 2-16	•	•	•	•
경조아문터 _1988_2009	경조아문 터	1988	2009	•	세종로 100	(지번 미 수록)	(지번 미 수록)	•	•	•

권율도원수집터 _1988_9999	권율 도원수 집 터	1988	9999	•	행촌동 1-113	행촌동 1-113	행촌동 1-113	(미수록)	행촌동 1-18	행촌동 1-82
김상옥의거터 _1988_2010	김상옥 의거 터	1988	2010	•	공평동 100	공평동 100	공평동 100	•	•	•
김상옥의거터 _2010_9999	김상옥 의거 터	2010	9999	이설 (사유불명)	•	•	•	종로2가 8-4	종로2가 8-4	종로2가 8-4
대한매일신보 창간사옥터 _1988_1995	대한매일신보 창간 사옥 터	1988	1995	1996~ 2003년은 자료부족, 추적불가	행촌동 1-18	홍파동 2-38	•	•	•	•
대한매일신보 창간사옥터 _2007_9999	대한매일신보 창간 사옥 터	2007	9999	이설 (위치오류)	•	•	•	수송동 80-7	수송동 85	수송동 80-14
박규수선생집터 _1988_9999	박규수 선생 집 터	1988	9999	•	(지번 미 수록)	재동 83	재동 83	재동 83	재동 83	재동 35-5
북평관터 _1988_2015	북평관 터	1988	2015	•	종로6가 107	종로6가	종로6가	종로6가 20-2	종로6가 70-3	•
북평관터 _2015_9999	북평관 터	2015	9999	이설 (통행불편)	•	•	•	•	•	종로6가 57-1
송시열집터 _1988_2013	송시열 집 터	1988	2013	•	(지번 미 수록)	(지번 미 수록)	(지번 미 수록)	(미수록)	혜화동 1-21	•
어영청터 _1988_2015	어영청 터	1988	2015	•	인의동 112-1	인의동 48-2	인의동 48-2	인의동 112-2	인의동 112-2	•
어영청터 _2015_9999	어영청 터	2015	9999	이설 (통행불편)	•	•	•	•	•	인의동 101-4
정철선생나신곳 _1988_9999	정철 선생 나신 곳	1988	9999	•	청운동 123	청운동 123	청운동 123	(미수록)	청운동 123	청운동 123-5
지석영집터 _1988_9999	지석영 집 터	1988	9999	•	낙원동 7	낙원동 17	낙원동 17	낙원동 2	낙원동 1	낙원동 5-3
홍화문터 _1988_9999	홍화문 터	1988	9999	•	신문로1 가 58-1	신문로1 가 58-1	신문로1 가 58-1	신문로1 가 58-4	신문로1 가 58-4	신문로1 가 58-1
동부학당터 _1989_2016	동부학당 터	1989	2016	•	종로6가 121	종로6가 121	종로6가 121	(지번 미 수록)	종로6가 121-1	•
동부학당터 _2016_9999	동부학당 터	2016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	종로6가 60-4
중부학당터 _1989_2016	중부학당 터	1989	2016	•	중학동 14	중학동 88	중학동 88	(지번 미 수록)	중학동 18-6	•
중부학당터 _2016_9999	중부학당 터	2016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	중학동 90-1
금위영터 _1990_9999	금위영 터	1990	9999	•	운니동 98-5	운니동 99	운니동 99	운니동 98-5	운니동 98-5	운니동 97-10
맹사성집터 _1990_9999	맹사성 집 터	1990	9999	•	삼청동 35-119	삼청동 35-119	삼청동 35-119	(미수록)	삼청동 35-119	삼청동 35-120
의정부터 _1990_2009	의정부 터	1990	2009	•	세종로 76	세종로 76-2	세종로 76-2	•	•	•
이항복집터 _1990_2013	이항복 집 터	1990	2013	•	필운동 9	필운동 12	필운동 12	(미수록)	•	•

제생원터 _1990_9999	제생원 터	1990	9999	•	계동 147	계동	계동	계동 140-2	계동 140-2	계동 149-4
척화비있던곳 _1990_2015	척화비 있던 곳	1990	2015	•	관철동	관철동	관철동	(미수록)	관철동 45-5	•
척화비있던곳 _2015_9999	척화비 있던 곳	2015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	관철동 45-13
6·10독립만세운동 선창터_1991_9999	6·10 독립만세운 동 선창 터	1991	9999	•	•	(지번 미 수록)	(지번 미 수록)	묘동 204-1	묘동 204-1	묘동 206-4
규장각터 _1991_2013	규장각 터	1991	2013	•	•	소격동 165	소격동 165	(지번 미 수록)	소격동 165	•
비변사터 _1991_2015	비변사 터	1991	2015	•	•	와룡동 5	와룡동 5	와룡동 5-6	와룡동 5-14	•
비변사터 _2015_9999	비변사 터	2015	9999	이설 (통행불편)	•	•	•	•	•	와룡동 5-9
사간원터 _1991_9999	사간원 터	1991	9999	•	•	사간동 62	사간동 62	사간동 66	소격동 65-1	사간동 67-2
사역원터 _1991_2015	사역원 터	1991	2015	•	•	도림동 98	도림동 98	도림동 80-2	도림동 95-1	•
사역원터 _2015_9999	사역원 터	2015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	도림동 122-4
원각사터 _1991_9999	원각사 터	1991	9999	•	•	신문로1 가 58-1	신문로1 가 58-1	(지번 미 수록)	신문로1 가 42	신문로1 가 48
육의전터 _1991_2014	육의전 터	1991	2014	•	•	종로1가 54, 종로 2가 14	종로1가 54, 종로2 가 14	(미수록)	종로2가 31	•
육의전터 _2014_9999	육의전 터	2014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	종로2가 6-1
한성정부유적지 _1991_2017	“한성정부” 유적지	1991	2017	•	•	내수동 65	내수동 65	(지번 미 수록)	내자동 75	•
한성정부유적지 _2017_9999	“한성정부” 유적지	2017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	내자동 67-2
경시서터 _1992_9999	경시서 터	1992	9999	•	•	종로2가 44	종로2가 44	종로2가 40	종로2가 40	종로2가 40
김상헌집터 _1992_2011	김상헌 집 터	1992	2011	•	•	궁정동 2	궁정동 2	(미수록)	•	•
김상헌집터 _2011_9999	김상헌 집 터	2011	9999	이설 (주변환경 열악하여 손상우려)	•	•	•	•	궁정동 17-4	궁정동 17-6
김옥균집터 _1992_9999	김옥균 집 터	1992	9999	•	•	화동 106	화동 260	화동 2	화동 2	가회동 122-5
사헌부터 _1992_2010	사헌부 터	1992	2010	•	•	세종로 80	세종로 80	•	•	•
전의감터 _1992_9999	전의감 터	1992	9999	•	•	견지동 39	견지동 39	견지동 39-7	견지동 39-7	견지동 34-2
정도전집터 _1992_9999	정도전 집 터	1992	9999	•	•	수송동 146	수송동 146	(미수록)	수송동 146-2	청진동 217-11

훈련도감터 _1992_2015	훈련도감 터	1992	2015	•	•	신문로1 가 58	신문로1 가 58	신문로1 가 57	신문로1 가 58-1	•
훈련도감터 _2015_9999	훈련도감 터	2015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	신문로1 가 57-3
3•1독립운동기념 터:보신각앞 _1993_9999	3•1 독립운동 기념 터: 보신각 앞	1993	9999	•	•	(지번 미 수록)	(지번 미 수록)	관철동 45-5	관철동 45-5	관철동 45-10
3•1독립운동기념 터:송동교회 _1993_9999	3•1 독립운동 기념 터: 송동교회	1993	9999	•	•	인사동 137	인사동 137	(미수록)	(미수록)	인사동 137
3•1운동유적지: 유심사터 _1993_2012	3•1 운동 유적지: 유심사 터	1993	2012	•	•	계동	•	계동 43	•	•
3•1운동유적지: 유심사터 _2012_9999	3•1 운동 유적지: 유심사 터	2012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계동 43	계동 43
3•1독립운동기념 터:종로YMCA _1993_9999	3•1 독립운동 기념 터: 종로 YMCA	1993	9999	•	•	종로2가	종로2가	종로2가 9	종로2가 9	종로2가 9-5
3•1독립운동기념 터:중앙학림 _1993_2015	3•1 독립운동 기념 터: 중앙학림	1993	2015	•	•	명륜1가 5-1	명륜1가 5-1	명륜1가 2-12	명륜1가 5	•
3•1독립운동기념 터:중앙학림 _2015_9999	3•1 독립운동 기념 터: 중앙학림	2015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	명륜1가 2-16
대동단본부터 _1993_9999	대동단 본부 터	1993	9999	•	•	구기동 168	구기동 168	구기동 10-15	구기동 176-1	구기동 10-14
보성사터 _1993_9999	보성사 터	1993	9999	•	•	수송동 44	수송동 44	수송동 80-7	수송동 80-7	수송동 80-7
손병희선생집터 _1993_9999	손병희 선생 집 터	1993	9999	•	•	가회동 170-12	가회동 170-12	가회동 170-3	가회동 170-4	가회동 170-10
수진측량학교터 _1993_9999	수진측량학교 터	1993	9999	•	•	수송동 53	수송동 53	수송동 146-2	수송동 146-2	수송동 146-6
이동녕주석집터 _1993_9999	이동녕 주석 집 터	1993	9999	•	•	봉익동 50	봉익동 50	훈정동 1-2	봉익동 56	봉익동 63
관립교동소학교 _1994_9999	관립 교동소학교	1994	9999	•	•	경운동 18	경운동 18	(지번 미 수록)	경운동 2	(미수록)
민영환집터 _1994_9999	민영환 집 터	1994	9999	•	•	견지동 27-2	견지동 27-2	견지동 38-2	견지동 38-2	견지동 38-2
우산각터 _1994_2011	우산각 터	1994	2011	•	•	송인동 5	송인동 5	(미수록)	•	•
자주동샘 _1994_2015	자주동 샘	1994	2015	•	•	창신동 9	창신동3 가 9	(지번 미 수록)	창신동 9-471	•
평창터 _1994_9999	평창 터	1994	9999	•	•	평창동 330	평창동 330	평창동 329-2	평창동 329-2	평창동 340
독립선언문배부터 _1995_9999	독립선언문 배부 터	1995	9999	•	•	•	경운동 88	경운동 88	경운동 88	경운동 88-3

송학선의사의거터 _1995_2015	송학선 의사 의거 터	1995	9999	.	.	.	와룡동 4	와룡동 5-6	와룡동 4-1	와룡동 5-6
우포도청 터_1995_2015	우포도청 터	1995	2015	.	.	.	종로1가 89	서린동 154-1	세종로동 139	.
우포도청 터_2015_9999	우포도청 터	2015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	종로1가 89-3
이상재집 터_1995_2017	이상재 집 터	1995	2017	.	.	.	가회동 156	가회동 156	가회동 157-1	.
이상재집 터_2017_9999	이상재 집 터	2017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	재동 83
좌포도청 터_1995_2016	좌포도청 터	1995	2016	.	.	.	묘동 56	묘동 59-5	묘동 59-2	.
좌포도청 터_2016_9999	좌포도청 터	2016	9999	이설 (관람불편)	.	.	.	.	.	묘동 59-8
지청천장군집 터_1995_2015	지청천 장군 집 터	1995	2015	.	.	.	삼청동 30	삼청동 37	삼청동 37-3	.
지청천장군집 터_2015_9999	지청천 장군 집 터	2015	9999	이설 (통행불편)	.	.	.	.	.	삼청동 30-4
진단학회창립 터_1995_9999	진단학회창립터	1995	9999	.	.	.	계동 98	계동 98	계동 98	가회동 218
3·1운동유적지:상 춘원터_1996_2012	3·1 운동 유적지: 상춘원 터	1996	2012	.	.	.	창신동 195	(미수록)	.	.
3·1운동유적지:상 춘원터_2012_9999	3·1 운동 유적지: 상춘원 터	2012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송인동 72-13	송인동 156-1
동망봉_1997_9999	동망봉	1997	9999	.	.	.	송인동 58	송인동 58-587	송인동 58-587	보문동6 가 209- 280
오간수문 터_1997_2011	오간수문 터	1997	2011	.	.	.	종로6가 289-3	(미수록)	.	.
이석형생가 터_1997_2011	이석형 생가 터	1997	2011	.	.	.	연건동 275	(미수록)	.	.
전옥서 터_1997_9999	전옥서 터	1997	9999	.	.	.	서린동 154	서린동 33	서린동 33	종로1가 60-4
최시형순교 터_1997_2016	최시형 순교 터	1997	2016	.	.	.	묘동 56	묘동 59-5	묘동 59-7	.
최시형순교 터_2016_9999	최시형 순교 터	2016	9999	이설 (관람불편)	.	.	.	.	.	묘동 59-8
남이장군집 터_1998_9999	남이 장군 집 터	1998	9999	.	.	.	연건동 126	(미수록)	연건동 78-3	연건동 72-24
안동별궁 터_1998_2015	안동별궁 터	1998	2015	.	.	.	안국동 172	안국동 175-2	안국동 175-2	.
안동별궁 터_2015_9999	안동별궁 터	2015	9999	이설 (관람불편)	.	.	.	.	.	송현동 56-3
종침교 터_1998_9999	종침교 터	1998	9999	.	.	.	내자동 71	내자동 223	내자동 223	내자동 235-3
청송당 터_1998_9999	청송당 터	1998	9999	.	.	.	청운동 89	(지번 미 수록)	청운동 89-3	청운동 15-25

한성부동부관아 터_1998_9999	한성부 동부관아 터	1998	9999	.	.	.	인의동 48	인의동 48-26	인의동 48-26	인의동 48-43
한성부북부관아 터_1998_9999	한성부 북부관아 터	1998	9999	.	.	.	사간동 70	사간동 70	사간동 70	사간동 72-2
한성부중부관아 터_1998_9999	한성부 중부관아 터	1998	9999	.	.	.	종로3가 171	(지번 미 수록)	종로3가 171	종로3가 60-1
혜정교터 _1998_9999	혜정교 터	1998	9999	.	.	.	종로1가 89	(미수록)	종로1가 1	종로1가 15-1
김상용집터 _1999_9999	김상용 집 터	1999	9999	.	.	.	청운동 52-8	(미수록)	청운동 52-1	청운동 52-8
노백린장군집터 _1999_9999	노백린 장군 집 터	1999	9999	.	.	.	계동 1	계동 1	계동 1	계동 2-3
선공감터 _1999_9999	선공감 터	1999	9999	.	.	.	신문로1 가 169	신문로1 가 163	신문로1 가 163	신문로1 가 163-3
순화궁터 _1999_9999	순화궁 터	1999	9999	.	.	.	인사동 194	인사동 194-27	인사동 194-27	관훈동 198-6
용성스님거주터 _1999_9999	용성 스님 거주 터	1999	9999	.	.	.	봉익동 1	봉익동 2	봉익동 7	봉익동 3
육군무관학교터 _1999_9999	육군무관학교 터	1999	9999	.	.	.	신문로1 가	신문로1 가 238	신문로1 가 238	신문로1 가 58-29
이율곡선생살던집 터_1999_2015	이율곡 선생 살던 집 터	1999	2015	.	.	.	관훈동 197	(미수록)	관훈동 197-28	.
이율곡선생살던집 터_2015_9999	이율곡 선생 살던 집 터	2015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	인사동 137
종부시터 _1999_9999	종부시 터	1999	9999	.	.	.	와룡동 139	와룡동 139	와룡동 139	와룡동 139
창의궁터 _1999_2016	창의궁 터	1999	2016	.	.	.	통의동 35-16	통의동 35-23	통의동 67-3	.
창의궁터 _2016_9999	창의궁 터	2016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	통의동 35-23
한성재관소터 _1999_2013	한성재관소 터	1999	2013	.	.	.	종로1가	(지번 미 수록)	서린동 136	.
계동궁터 _2000_9999	계동궁 터	2000	9999	.	.	.	계동 143	계동 140-2	계동 140-2	계동 147-2
관상감터 _2000_9999	관상감 터	2000	9999	.	.	.	원서동 206	원서동 219	운니동 98-9	운니동 98-9
내수사터 _2000_9999	내수사 터	2000	9999	.	.	.	내수동 33	내수동 72	내수동 72	내수동 35-2
내자시터 _2000_9999	내자시 터	2000	9999	.	.	.	(지번 미 수록)	내자동 141-2	내자동 142-1	내자동 141-1
백록정터 _2000_9999	백록정 터	2000	9999	.	.	.	가회동 1	(미수록)	계동 산 1-1	계동 1-27
병조터 _2000_2010	병조 터	2000	2010	.	.	.	세종로 60-1	.	.	.
사복시터 _2000_9999	사복시 터	2000	9999	.	.	.	수송동 146	수송동 146-2	수송동 146-2	수송동 145-1
승문원터 _2000_9999	승문원 터	2000	9999	.	.	.	계동 140	계동 140-55	계동 140-2	계동 140-55

양현고터 _2000_9999	양현고 터	2000	9999	•	•	•	명륜3가 2	명륜3가 2-1	명륜3가 2-1	명륜3가 2-1
여단터 _2000_2015	여단 터	2000	2015	•	•	•	평창동 113	평창동 113-1	평창동 113	•
여단터 _2015_9999	여단 터	2015	9999	이설 (관람불편)	•	•	•	•	•	평창동 108-2
예조터 _2000_2009	예조 터	2000	2009	•	•	•	(지번 미 수록)	(미수록)	•	•
용동궁터 _2000_9999	용동궁 터	2000	9999	•	•	•	수송동 79	수송동 80-7	(지번 미 수록)	수송동 44-1
의영고터 _2000_9999	의영고 터	2000	9999	•	•	•	도림동 40	도림동 95-1	(지번 미 수록)	도림동 17-1
이조터 _2000_2009	이조 터	2000	2009	•	•	•	세종로 82	•	•	•
이현궁터 _2000_2016	이현궁 터	2000	2016	•	•	•	인의동 48	인의동 28-9	(지번 미 수록)	•
이현궁터 _2016_9999	이현궁 터	2016	9999	이설 (통행불편)	•	•	•	•	•	인의동 28-32
제용감터 _2000_2015	제용감 터	2000	2015	•	•	•	수송동 108-4	(미수록)	중학동 54	•
제용감터 _2015_9999	제용감 터	2015	9999	이설 (통행불편)	•	•	•	•	•	중학동 19
형조터 _2000_2010	형조 터	2000	2010	•	•	•	세종로 61-3	•	•	•
호조터 _2000_2009	호조 터	2000	2009	•	•	•	(지번 미 수록)	•	•	•
화기도감터 _2000_9999	화기도감 터	2000	9999	•	•	•	화동 23	(지번 미 수록)	화동 2	화동 138-32
감고당터 _2001_9999	감고당 터	2001	9999	•	•	•	(지번 미 수록)	(미수록)	안국동 27-4	송현동 34-2
경우궁터 _2001_2016	경우궁 터	2001	2016	•	•	•	계동 146	계동 140-2	계동 146-2	•
경우궁터 _2016_9999	경우궁 터	2016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	계동 140-85
공조터 _2001_2009	공조 터	2001	2009	•	•	•	세종로 81-3	•	•	•
기로소터 _2001_2009	기로소 터	2001	2009	•	•	•	(지번 미 수록)	•	•	•
세검정차일암 _2001_2010	세검정 차일암	2001	2010	•	•	•	(지번 미 수록)	•	•	•
금위영서영터 _2001_9999	금위영 서영 터	2001	9999	•	•	•	와룡동	원서동 129-5	원서동 129-5	원서동 129-6
김가진집터 _2001_9999	김가진 집 터	2001	9999	•	•	•	사직동 45	체부동 45-2	체부동 45-2	체부동 37-1
농상아문터 _2001_2013	농상아문 터	2001	2013	•	•	•	청운동	(지번 미 수록)	청운동 89-12	•

대심원터 _2001_2013	대심원 터	2001	2013	•	•	•	(지번 미 수록)	(지번 미 수록)	공평동 100	•
도염서터 _2001_9999	도염서 터	2001	9999	•	•	•	(지번 미 수록)	세종로 80-1	세종로동 79-10	세종로 79-11
도정궁터 _2001_9999	도정궁 터	2001	9999	•	•	•	사직동 262-85	사직동 261	사직동 261	사직동 260
돈녕부터 _2001_9999	돈녕부 터	2001	9999	•	•	•	(지번 미 수록)	낙원동 58-1	낙원동 58-1	낙원동 58-1
백련사터 _2001_9999	백련사 터	2001	9999	•	•	•	(지번 미 수록)	(미수록)	삼청동 25-1	삼청동 25-35
백세청풍바위 _2001_2013	백세청풍 바위	2001	2013	•	•	•	청운동 52-58	(미수록)	청운동 52-94	•
북정터 _2001_2016	북정 터	2001	2016	•	•	•	화동 35	(지번 미 수록)	화동 59-1	•
봉상시터 _2001_2016	봉상시 터	2001	9999	•	•	•	(지번 미 수록)	당주동 128-27	당주동 128-27	당주동 128-12
부침바위터 _2001_9999	부침바위 터	2001	9999	•	•	•	부암동 134	부암동 141-1	부암동 141-1	부암동 141-3
사섬시터 _2001_9999	사섬시 터	2001	9999	•	•	•	명륜3가 127	(미수록)	명륜3가 147-1	명륜3가 147-1
사온서터 _2001_9999	사온서 터	2001	9999	•	•	•	(지번 미 수록)	적선동 175	적선동 175	적선동 175
서십자각터 _2001_9999	서십자각 터	2001	9999	•	•	•	(지번 미 수록)	세종로 1-57	(지번 미 수록)	적선동 8-4
인평대군집터 _2001_2016	인평대군 집 터	2001	9999	•	•	•	이화동 27	(미수록)	이화동 149-1	이화동 27-2
세창서관터 _2001_9999	세창서관 터	2001	9999	•	•	•	종로4가 77	종로3가 18	종로3가 18	종로3가 18
소격서터 _2001_9999	소격서 터	2001	9999	•	•	•	(지번 미 수록)	소격동 1-1	소격동 1-1	소격동 1-1
송석원터 _2001_9999	송석원 터	2001	9999	•	•	•	옥인동 47	옥인동 41	옥인동 47-33	옥인동 41
수진궁터 _2001_2016	수진궁 터	2001	2016		•	•	수송동 53	수송동 51-8	수송동 51-8	수송동 156-2
야주개터 _2001_9999	야주개 터	2001	9999	•	•	•	신문로 18 • 20	신문로1 가 24	신문로1 가 23	신문로1 가 23-3
어유구집터 _2001_9999	어유구 집 터	2001	9999	•	•	•	명륜2가 21	(미수록)	명륜2가 21-26	명륜2가 21-25
어의궁터 _2001_9999	어의궁 터	2001	9999	•	•	•	효제동 22	효제동 22-3	효제동 22-3	효제동 21-3
이문터 _2001_9999	이문 터	2001	9999	•	•	•	(지번 미 수록)	(미수록)	종로2가 22-2	종로2가 22-2
이상집터 _2001_2004	이상 집 터	2001	2004	2005~ 2009년은 자료부족, 추적불가	•	•	통인동 154	(철거된 곳으로 기록됨)	•	•
자수궁터 _2001_9999	자수궁 터	2001	9999	•	•	•	옥인동 45	옥인동 45-1	옥인동 45-1	옥인동 47-66

장예원터 _2001_2016	장예원 터	2001	2016	•	•	•	(지번 미 수록)	세종로 155-4	당주동 11	•
장예원터 _2016_9999	장예원 터	2016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	세종로 185-2
장원서터 _2001_9999	장원서 터	2001	9999	•	•	•	화동 23	화동 25-1	화동 22	화동 1-21
장흥고터 _2001_2016	장흥고 터	2001	2016	•	•	•	(지번 미 수록)	내자동 201-11	적선동 107-1	•
장흥고터 _2016_9999	장흥고 터	2016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	내자동 238
종친부터 _2001_2016	종친부 터	2001	2016		•	•	소격동 165	소격동 165	소격동 165	소격동 165-3
죽동궁터 _2001_9999	죽동궁 터	2001	9999	•	•	•	(지번 미 수록)	관훈동 198-42	인사동 194-35	인사동 194-26
준천사터 _2001_2016	준천사 터	2001	2016	•	•	•	관수동 152·153	관수동 91-1	관수동 152-1	•
준천사터 _2016_9999	준천사 터	2016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	관수동 91-2
취운정터 _2001_9999	취운정 터	2001	9999	•	•	•	삼청동 산 2	삼청동 25-23	삼청동 25-23	계동 1-10
탕춘대한지마을터 _2001_2013	탕춘대 한지마을 터	2001	2013	•	•	•	(지번 미 수록)	(미수록)	신영동 136-9	•
통례원터 _2001_9999	통례원 터	2001	9999	•	•	•	운니동 20	와룡동 139	와룡동 138	와룡동 139
한성도서주식회사 터_2001_9999	한성도서주식회사 터	2001	9999	•	•	•	견지동 32	견지동 30	견지동 32-3	견지동 30
현진건집터 _2001_9999	현진건 집 터	2001	9999	•	•	•	부암동 325-2	부암동 325-2	부암동 325-2	부암동 322-25
등과정터 _2002_9999	등과정 터	2002	9999	•	•	•	사직동 산 1-1	사직동 산1-1	사직동 1-1	사직동 1-23
사직서터 _2002_2013	사직서 터	2002	2013	•	•	•	사직동 1-27	(지번 미 수록)	사직동 1-28	•
사포서터 _2002_9999	사포서 터	2002	9999	•	•	•	수송동 116	수송동 104	수송동 104	수송동 116-4
양부일구(해시계)터 _2002_2015	양부일구(해시계) 터	2002	2015	•	•	•	종로3가	(지번 미 수록)	훈정동 2	•
조선건국동맹터 _2002_9999	조선건국동맹 터	2002	9999	•	•	•	(지번 미 수록)	경운동 89-4	경운동 89-4	경운동 89-2
총용청터 _2002_9999	총용청 터	2002	9999	•	•	•	신영동 219-4	신영동 219-4	신영동 47-1	신영동 47-1
충훈부터 _2002_9999	충훈부 터	2002	9999	•	•	•	(지번 미 수록)	관훈동 130-3	관훈동 130-3	관훈동 129-3
탕춘대터 _2002_9999	탕춘대 터	2002	9999	•	•	•	(지번 미 수록)	신영동 136-9	신영동 136-9	신영동 136-9
경모궁터 _2003_2011	경모궁 터	2003	2011	•	•	•	•	연건동 28-22	•	•

별기군훈련소터 _2003_9999	별기군 훈련소 터	2003	9999	.	.	.	.	평창동 235-2	평창동 235-2	평창동 235-2
사도시터 _2003_9999	사도시 터	2003	9999	.	.	.	.	원서동 181	원서동 206	운니동 98-7
서북학회터 _2003_9999	서북학회 터	2003	9999	.	.	.	.	경운동 47-17	경운동 47-1	경운동 47-17
여인시장터 _2003_2015	여인시장 터	2003	2015	.	.	.	.	(미수록)	송인동 242-1	.
우미관터 _2003_9999	우미관 터	2003	9999	.	.	.	.	종로2가 75-2	관철동 89	종로2가 84-11
조선극장터 _2003_2014	조선극장 터	2003	2014	.	.	.	.	인사동 130	인사동 130-1	.
한성전보총국터 _2003_2016	한성전보총국 터	2003	2016	.	.	.	.	세종로 80-1	세종로 80-1	.
한성전보총국터 _2016_9999	한성전보총국 터	2016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	도림동 123-5
기당현상운선생집 터_2004_9999	기당 현상운 선생 집 터	2004	9999	.	.	.	.	(미수록)	가회동 1-35	가회동 1-35
김수영생가터 _2004_9999	김수영 생가 터	2004	9999	.	.	.	.	종로2가 56-17	종로2가 56-17	종로2가 56-26
박인환선생집터 _2004_9999	박인환 선생 집 터	2004	9999	.	.	.	.	종로1가 1	세종로동 116	세종로 110-2
이정귀집터 _2004_2011	이정귀 집 터	2004	2011	.	.	.	.	(미수록)	.	.
이정귀집터 _2015_9999	이정귀 집 터	2015	9999	이설 및 재설 (위치비정 근거확보)	.	.	.	.	.	혜화동 169
경성궐도회사터 _2005_9999	경성궐도회사 터	2005	9999	.	.	.	.	창신동 444-4	창신동 444-14	창신동 442-2
쌍홍문터 _2005_9999	쌍홍문 터	2005	9999	.	.	.	.	.	효자동 172-1	효자동 40-1
여운형집터 _2005_9999	여운형 집 터	2005	9999	.	.	.	.	계동 140-10	계동 140-44	계동 140-10
전차차고터 _2005_9999	전차 차고 터	2005	9999	.	.	.	.	종로6가 289-3	종로6가 289-3	종로6가 289-58
조선일보창간사옥 터_2005_9999	조선일보 창간 사옥 터	2005	9999	.	.	.	.	관철동 43-11	관철동 43-12	관철동 43-11
황성신문터 _2005_9999	황성신문 터	2005	9999	.	.	.	.	서린동 33	서린동 33	서린동 1-12
홍덕사터 _2005_9999	홍덕사 터	2005	9999	.	.	.	.	(미수록)	명륜1가 2-1	명륜1가 2-42
대한전일은행본점 터_2006_9999	대한전일은행 본점 터	2006	9999	.	.	.	.	관철동 43-11	관철동 13-23	관철동 43-11
동아일보창간사옥 터_2006_2015	동아일보 창간 사옥 터	2006	2015	.	.	.	.	화동 138-26	화동 138-33	.

동아일보창간사옥 터_2015_9999	동아일보 창간 사옥 터	2015	9999	이설 (위치오류)	•	•	•	•	•	화동 138-32
한양의원터 _2006_9999	한양의원 터	2006	9999	•	•	•	•	(미수록)	낙원동 146-1	낙원동 143-3
김창숙선생집터 _2007_9999	김창숙 선생 집 터	2007	9999	•	•	•	•	명륜3가 86-1	명륜2가 87	명륜3가 76-2
신간회본부터 _2007_9999	신간회 본부 터	2007	9999	•	•	•	•	종로2가 46	종로2가 45	종로2가 48-1
조선어학회터 _2007_9999	조선어학회 터	2007	9999	•	•	•	•	화동 130-1	화동 129	화동 130-3
옥호정터 _2008_9999	옥호정 터	2008	9999	•	•	•	•	삼청동 127	삼청동 126-1	삼청동 125-4
신홍대학터 _2011_9999	신홍대학 터	2011	9999	•	•	•	•	•	수송동 80-7	수송동 80-7
한국천주교회창립 터_2011_9999	한국 천주교회 창립 터	2011	9999	•	•	•	•	•	관수동 152	관수동 152-2
송진우집터 _2011_2014	송진우 집 터	2011	2014	•	•	•	•	•	원서동 74-1	•
송진우집터 _2014_9999	송진우 집 터	2014	9999	이설 (신규 디자인 적용)	•	•	•	•	•	원서동 75-1
어니스트베델집터 (1)_2014_9999	어니스트 베델 집 터(1)	2014	9999	•	•	•	•	•	•	홍파동 2-31
개천절행사발상지 _2015_9999	개천절 행사 발상지	2015	9999	•	•	•	•	•	•	원서동 181-1
김경천집터 _2015_9999	김경천 집 터	2015	9999	•	•	•	•	•	•	사직동 9-6
대종교중광터 _2015_9999	대종교 중광 터	2015	9999	•	•	•	•	•	•	가회동 10-3
신교터 _2015_9999	신교 터	2015	9999	•	•	•	•	•	•	신교동 60-17
의학교터 _2015_9999	의학교 터	2015	9999	•	•	•	•	•	•	경운동 90-4
사동궁터 _2016_9999	사동궁 터	2016	9999	•	•	•	•	•	•	견지동 84
어니스트베델집터 (2)_2016_9999	어니스트 베델 집 터(2)	2016	9999	•	•	•	•	•	•	홍파동 2-41
이준집터 _2017_9999	이준 집 터	2017	9999	•	•	•	•	•	•	안국동 148

주: 이 표는 본문 표 1을 전체로 확장한 것이다.

자료: 朴慶龍(1991), 서울특별시(1995), 서울특별시(2004), 한국콘텐츠진흥원(2010),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서울열린데이터광장(2017)